

초자연적인 현상

보이지 않는 세계와—왜 그것이 중요한지 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

마이클 에스. 하이저

번역: 소성진

초자연적인 현상

저작권은 마이클 하이저에게 있음 © 2015

초자연적인 현상 네덜란드어 번역

© 2017, 미클랏

이 번역본의 전체의 내용은 저작권 소유자와 작가의 인가를 받아 다양한 형태로 복사되고 배포될 수 있습니다. 이 인가는 오직 Miqlat.org 에 의해 출판된 번역본에 한해서 적용 됩니다. Miqlat.org 는 미국 501(c)(3) 에 의거한 비영리법인 입니다. 그러므로 이 허락은 Lexham 출판사에 의해 출판된 것과 같은 언어, 또는 그 어떤 다른 언어에 의한 번역본에 대한 확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ISBN 국제 표준 도서 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번역: 소 성진

나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에드와 켄 스페로우에게 바칩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 1:1-28

영문판 원본에 대한 감사의 글

비록 축약된 형태이긴 하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이 저의 책 **보이지 않는 왕국**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상의 의회와 보이지 않는 성서신학의 세계가 저의 학자로서의 경력의 초점이 될 것이라는 결정을 한 직후에 만들어 진 온라인상의 토론 그룹에게 감사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당연히 저는 그 그룹을 천상의 의회의 스터디 그룹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에서 일을 시작하였던 2004년에 이 그룹은 해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경험은 그 두 가지의 책을 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왕국**은 **진실인 신화**라는 이름이 붙여진 원고의 형태로 시작 하였습니다. 그것은 저의 소설, 파사드와 웹사이트의 콘텐츠에 관심을 가져 주신 팔로우어들을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그 자료들의 상당 부분은 매달 생산해야만 하는 그 무엇처럼 저 자신의 책임감으로 느껴 졌습니다. 처음에는 뉴스레터의 형태로 그리고 그 후에는 블로그로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초안은, 발간 당시에 “신화 책”으로 불리워 졌고 2012년에 완성 되었습니다. 그 원고는 독자들의 피드백의 결과로서 향상 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여자 명단은 **보이지 않는 왕국**의 감사의 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왕국의 출판을 뒷받침했던 주요한 힘은—그 덕분에 **수퍼내츄럴**이 출판됨—**페이스라이프 코아퍼레이션/로고스 바이블**의 세 분의 간부들, 밥 프리쳇, 데일 프리쳇, 그리고 빌 니엔후에스 입니다. 소프트 웨어는 저의 원고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콘텐츠의 정제된 버전에 대한 필요성을 예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수퍼내츄럴**은 그분들의 예지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책, **보이지 않는 왕국**의 편집자인 데이브 램버트 씨가 **수퍼내츄럴**도 또한 편집을 맡아 주었습니다. 그의 전문 지식과 경험에서 비롯된 혜택은 모든 페이지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대부분의 평범한 성도들을 제 머리 속에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아내 드레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번역에 대한 감사의 글

Miqlat.org에 기부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기부가 없었다면, 이 번역 작업은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목차

제 1장: 성경에 대한 믿음

제 2장: 보이지 않는 왕국: 하나님과 다른 신들

제 3장: 과거와 미래의 왕

제 4장: 천상의 반란

제 5장: 우주적인 지형

제 6장: 말씀, 이름, 그리고 천사

제 7장: 교전 수칙

제 8장: 신성한 공간

제 9장: 성스러운 전쟁

제 10장: 뻔히 보이는 곳에 숨는 것

제 11장: 초자연적인 의도

제 12장: 구름을 타는 사람

제 13장: 위대한 반전

제 14장: 이세상의 것이 아닌 사람

제 15장: 신성의 참여자

제 16 장: 천사들 위의 통치

결론

용서의 기도

작가로부터의 요청

제 1장

성경에 대한 믿음

여러분께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읽혀 지고 있는 성경책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이상한 질문으로 여겨질 것 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질문이 그렇게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속에 제법 이상한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더 믿기 어려운 이상한 일들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같은 큰 사건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실 때 홍해를 열어 길을 내어 주셨던 엑소더스와 같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거리가 멉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일들을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또는 그분들이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을 때, 가끔 마주치지만 교회에서는 좀처럼 들어보지 못한 일, 거의 알려 지지 않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입니다.

여기에 한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유다왕과 함께 동맹을 형성하여 적을 공격하고 싶어 했습니다. 유다의 왕은 미래를 점 쳐 보고 싶었습니다—그는 만약 그들이 공격을 감행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왕은 아합의 예언자들에게 물어 보았고, 그들은 모두가 공격을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들은 그저 아합 왕이 듣기 좋아할 말만 하였고, 두 왕들도 그 사실을 알아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인 미가야에게 물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미가야가 말하는 것은 아합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나는 주께서 그의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모든 천사의 무리들이 주의 결의 오른편과 왼편에 섰는지라; 그리고 주가 이르시되, “누가 아합을 유인하여, 그로 하여금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그리고는 한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천사는 저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아와 주 앞에 서서 말하기를, “제가 그를 유인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좋은 수가 있느냐?” 그때 그 천사가 말하기를, “제가 내려 가서, 아합왕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 속에 들어가 거짓말 하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유인하면 성공할 것이다; 나가서 그렇게 할 지어다.” 그러므로 이제 보아라, 주께서 거짓말 하는 천사를 이 모든 예언자들의 입술에 두셨으니; 주께서 왕에게 재앙을 선포하신 것이니라. ([열왕기상 22:19-23](#))

여러분께서는 성경이 믿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감을 잡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만나셔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이것은 진짜인가요?

여기 유다서가 제시하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천사의 지위에 머물지 않았던 천사들은, 자기 처소를 떠났고, 최후의 심판 날까지 암울한 암흑 속에서 영원한 사슬에 묶여져 있어야 한다. ([유다서 1:6](#))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무리들을 지하감옥에 보내셨다? 정말일까요?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더욱 더 이상한 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속의 다소 논란이 적은 초자연적인 일,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들을 하셨나, 등을 가르치는(적어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성경 구절들은 그들을 조금 불편한 상태 이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이 구절들을 무시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경향을 가까이서 목격해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성경 말씀을 연속으로 이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시무하고 있는 교회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 목사님이 [베드로 전서 3:18-22](#) 을 펼치셨는데, 강단 위에 서자마자 하신 말씀이 “우리는 이 대목의 성경구절을 건너뛰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이상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표현하신 것의 의미는 바로 그의 이론에 맞지 않는 초자연적인 요소가 그 성경 구절에 포함 되었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음이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베드로 전서. 3:18-20NIV](#))

도대체 그들은 누구이며, 어느 옥에 갇혀있던 영령들이란 말인가요? 그 목사님 또한 그것을 몰랐거나 또는 그 해답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구절들을 단순히 무시해 버리기로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성경 학자로서, 저는 의아한 구절들(그리고 또 다른 거의 알려 지지 않거나, 이해가 거의 안된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구절들은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삶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들을 깨우쳐 줍니다. 제 말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고, 수수께끼 같이 어려운 그 의미를 이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서로간에 대한, 그리고 우리들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신도들에게 쓰기를, 어떻게 해서 믿는 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서로를 법정으로 데려가고 하는 일들을 벌이는 지에 대해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은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의 낭비이며, 또한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반향을 느끼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개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지배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전서. 6:3](#), 제가 알기 쉽게 표현한 것).

세상을 심판한다? 천사를 지배한다?

사도 바울이 그 수수께끼 같은 성경 구절에서 하는 말씨는 놀랍고도 인생을 변화 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존재의 활동들을 우리의 인생과 운명에 연결 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과, 사도 바울이 말 한 것처럼 우리가 천사들을 지배한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신도들에게 말했던 것과—또 우리들에게도—그것을 말 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늘 나라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얼마나 바라시는 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족 관계에서 비롯된 용어가 쓰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집을 함께 사용하고 일도 같이 하는 가족관계—하나님, 예수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 그리고 신자들, 여러분과 나와 같은 사람의 총체적인 집단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하나님의 가족과 창조물의 통치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상에서 나온 것이며 주기도문에서도 발견되는 표현입니다. ([마태 복음. 6:10](#))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간 가족이 완벽한 세상에서—하나님의 천사군,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과 같이 지내고 있는 그 가족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야기—하나님의 목표, 암흑세력으로 구성된 반대 세력, 하나님의 목표의 실패, 그리고 궁극적인 미래의 성공—는 이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바로 성경에서 말씀 하는 것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성경 이야기라는 드라마에 그 모든 배우들—그 서사시의 일부분이면서도 많은 성경 선생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온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성경 이야기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군의 멤버들은 주변적인 존재가 아니며 하찮은 존재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이야기 즉, 성경 속의 인간의 이야기와 관계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성경 독자들은, 수십 곳의 가장 친숙한 성경의 일화 속에서 초자연적인 세계가 환상적인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흔하게 그들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채 그냥 읽고 지나쳐 갑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지금과 같은 성경을 보는 눈을 갖게 된 것은 수십 년이 걸려서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그리고 저는 그 수십 년간의 연구로 열매 맺은 성과를 여러분과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 부분에서 여러분께 드렸던 그 질문의 본질을 계속 유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그것을 믿지 않으신다면, 성경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진실로 얘기하는 것과, 그것이 당신의 인생과 어떻게 만나는 지에 대한 것은 별로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6:8-23](#) 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는 (또다시)곤경에 처합니다. 화가 난 왕이 군대를 보내 엘리사의 집을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엘리사는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겁내지 말지어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들이 저들과 함께 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그 종이 반문을 하기도 전에, 엘리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주시어 그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젊은이의 눈을 열어 주셨고, 그리고 그는 눈을 뜨고, 마침내 바라 보았습니다. 그 온 산에 가득한 기마병들과 불마차가 엘리사의 주변을 빈틈없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엘리사의 그 기도는 여러분을 위한 저의 기도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여시어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이제 다시는 이때까지 성경을 바라 보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2장

보이지 않는 왕국: 하나님과 다른 신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과 초인적인 것에 매료됩니다. 최근의 흥행 산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수십 년간의 수많은 책들과, 텔레비전 쇼, 그리고 영화들은 천사, 외계인, 괴물, 악령, 유령, 마녀, 마술, 흡혈귀, 늑대인간, 그리고 슈퍼 영웅들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다수의 할리우드 영화 성공작들은 초자연적 인물이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엑스맨, 어벤져스, 해리포터 시리즈, 슈퍼맨, 그리고 트와잇라이트 사가. 프린지와 같은 TV 드라마에서도 그러 하였고, 물론, 슈퍼내추럴과 엑스파일은 원작이 만들어 진지가 꽤 오래 된 뒤에도 충실한 후속 작들이 뒤따라 만들어 졌습니다. 정말이지, 그런 소재는—이야기 속에서, 책 속에서, 예술 산업에서 항상 인기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그 답변 중 하나는 평범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작품들은 우리 자신의 세상보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세상을 제공해 줍니다. 그곳에서는 선과 악의 대결이 우주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우리를 흥분하게 합니다. 반지의 제왕 3부작에서 어둠의 군주 사우론에 맞서는 중세 지구의 영웅들(건달프, 프로도, 그리고 친구들)의 서사시적인 투쟁은 거의 반세기 동안이나 독자들을(현재는 영화 팬들을)사로 잡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요소와 악당이 더 강할수록, 극적인 승리감도 더 강해 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의 답변은,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말입니다. ([전도서. 3:11](#)) 인간의 본질 속에는 인간의 경험적인 삶을 초월한 신성한 그 무언가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이러한 갈망에 대해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저 살아 가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창조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 자신의 왕국 그 너머에 있는 왕국도 그러하니라([로마서. 1:18-23](#)).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충동은 워낙 강해서 의도적으로 억제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18절](#)).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성경말씀의 서사적인 이야기를 책이나, 영화, 그리고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특수 효과의 부족함보다 더 큰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의 등장인물들은 너무 평범하거나 할아버지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들은 박진감이 있거나 영웅적으로 느껴 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우리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줄곧 들어왔던 같은 인물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탄 극에 등장하는 것처럼, 양치기와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의 끝없는 고대의 퍼레이드를 현대적으로 규명하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왜 공상 과학이나 초자연적인 환상이 우리의 상상력을 더 쉽게 사로잡는지에 대한 보다 더 근본적인 요인은, 우리가 성경 속의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배워왔는지 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수년간 들어 왔던 이야기는 단지 이젠 너무 늦다는(시기를 놓쳤다) 것만이 아닙니다—그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지루하게 만듭니다. 더 나쁜 것은, 교회의 가르침은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무력화 하고, 무기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사실이라고 믿고 상상하고 있는 일 중 상당수는 사실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체루빔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라고 불려진 적도 없고 그저 생명이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천사들은 항상 인간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주: 체루빔(Cherubim): 유대교에서 나온 단어로 복수형으로 신에게 가장 가까운 무형생물. 악마들은 뿔과 꼬리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결정에 의해 좋을 대로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악마의 형상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끔찍하게 묘사하고 있는 동안, 영리한 마귀는 사람들로 부터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 내는 대신에 그보다 더욱 더 사악한 일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사들과 악마들은 조연 배우들입니다. 교회는 결코 거물들과 그들의 의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신들은 진짜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는 지 물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깜짝 퀴즈로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결정을 수행할 하나님의 특수 임무 부대를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회, 자문기관, 또는 법원으로 불려 졌습니다. ([시편. 89:5-7](#); [다니엘. 7:10](#)) 이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성경구절은 [시편 82:1](#)절 입니다. 굿 뉴스 번역(GNT)이 그걸 잘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의회를 주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결정을 하나님의 성회에 내려 주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깜짝 놀랄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것을 진지하게 바라 보았을 때 그것은 나를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고 간단한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과 마찬가지로, [시편 82:1](#)절 말씀은 다른 성경구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전후 문맥을 맞추어서 이해 하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들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그 용어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래의 히브리어의 신을 일컫는 말은 엘로힘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엘로힘을 단지 한가지 개념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하나님 아버지를 일컫는 이름 중 하나로서 말입니다—우리가 그 이름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모든 거주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왜 그 단어가 하나님 자신과([창세기. 1:1](#)), 악령들 ([신명기. 32:17](#)), 그리고 사후 세계의 죽은 인간들([사무엘상. 28:13](#))을 위해 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집주소가 영적인 세계로 되어 있는 모든 존재는 엘로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 용어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특정한 능력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다른 모든 신들과 구별하고 있으며,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신들에게 성경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명령합니다([시편. 29:1](#)). 하나님은 신들의 창조자이며 왕이십니다 ([시편95:3](#); [148:1-5](#)). [시편 89:6-7](#) (GNT 굿 뉴스 번역) 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하늘의 그 누구도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늘의 그 어떤 존재도 주와 동일한 신은 없습니다[[열왕기상 8:23](#); [시편 97:9](#)]. 하나님은 신들의 의회조차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라.” 성경의 저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는 없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직설적입니다—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라”(신명기. [10:17](#); [시편. 136:2](#)).

이것들은 “신들의 의회”에서 시작되며 사실입니다. 이 책의 첫째 장에서, 저는 아합왕을 제거하기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천상의 천사들과 만남을 가진 장면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구절에서, 천상의 단체는 영혼이라 일컬어 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혼의 세계가 진실이며 그곳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의 존재들(천사들과 같은)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제가 위에서 인용했던 구절에서 묘사된 것과 많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특수 임무 부대를 받아 들여야만 하며 이 또한 진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영혼의 실체에 대해 립 서비스를 하는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천상의 의회멤버들을 성령들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들의 존재가 그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각상은 천상의 의회의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대의 세계에서 경쟁하던 다른 신들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우상들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실제로는 아무 권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수공예품 우상들은 그저 그들의 신으로 하여금 거기에 거주 할 수 있게 하면서 희생물을 받아 들이고, 그들의 신들에게 그 우상 속에 들어 와서 주거를 정하여 줄 것을 간청하는 종교 의식을 지내는 추종자들에게 지식을 나누어 주는 물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회의 구조와 업무

[시편 82:1](#)절에 나오는 신들은 바로 다음의 [6](#)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 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란 말은 성경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보통 하나님이 참석하고 있는 곳에서 언급됩니다([욥기 1:6](#); [2:1](#) 절에서 보듯이). [욥기 38:7](#) 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구를 빚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주변에 존재하였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존재들을 그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에, “가족”이란 단어는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똑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의 자손들을 가리켜 아들, 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의 왕이십니다. 고대의 세계에서는, 왕들은 종종 그들의 대가족을 다스리곤 했습니다. 왕위는 후계자에게 계승되었습니다. 통치는 가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들이라는

관계 덕분에 하나님의 바로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책을 통해 계속 토론을 할 예정이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였습니다—그들 중 일부가 불충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의사 결정자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22](#)절과 (그리고 다른 많은 성경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역사와 함께 상호 작용을 하면서 관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아합 왕을 죽일 때가 되었다고 결정하시고는, 하나님의 의회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 질지에 대한 결정권을 맡겼습니다.

신의 의회의 회의가 인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 볼 때 [시편 82](#) 편과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니엘4](#)장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일시적 정신이상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 칙령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판단” ([다니엘. 4:24](#))과 “지켜보시는 이의 판단”에 의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니엘. 4:17](#)) *지켜보시는 이* 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의 의회의 신성한 존재들을 일컫는데 사용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건들에 대해 얼마나 잘 주시하고 있는지 잘 나타냅니다; 그들은 절대로 잠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의 의회의 회기에 관한 성경의 장면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회 멤버들은 하나님의 규칙에 참여한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몇몇 사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명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대리인들에게 그 방법을 결정할 자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또한 하나님의 의회에 참여 합니다. 성경 속의 원래의 언어에는, 천사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사실상 전달자(메신저)를 의미 합니다. 천사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직무 명세서 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 합니다. 우리는 천사들과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더 배울 것입니다—또한 하나님의 의회 멤버들의 의무에 대해서도 더 배울 것입니다—이 책의 후반부에서.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이 책에서 여기까지 모든 것을 읽으신 독자 여러분의 반응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이야기—내가 이전에는 성경 속에서 전혀 보지 못 했던 일들. 그러나 이 모든 정보가 가진 영향의 결과는, 만약 그 무언가가 있다면, 나의 일상적인 인생과 나의 교회의 역할의 방법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이 책에서 나타난 사실들은 하나님이 누구 신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전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 섹션과 같이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 단원의 진실의 실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분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집행부와 그들에 대한 성경의 묘사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고, 그리고 그 묘사가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통찰력을 주는 지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천상의 가족 사업은 하나님과 세속적인 가족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더 논의하겠지만, 여기에 예가 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천상의 의회가 필요 하신지에 대해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일에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욱 그러하실 겁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실 때에 작은 존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천상의 의회가 필요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 하나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방법을 선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 또한 필요가 없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서, 의지할 곳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 주어라, 그리고 그것을 좋았다 라고 하셨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머리에 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 주시어 서로 사랑하라고 설득하실 수도 있었습시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시다. 그 대신에,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들— 여러분들과 저—을 이용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기 위해 미리 결정을 내려 두실 수도 있었습시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시다. 아합 왕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그의 뜻을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는지의 결정을 천상의 보좌관들이 내리게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유 의사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 미리 결정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진짜 세상에서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조직구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 경영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통치권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서도 참여 합니다.

무척 놀랍게도, 인간에게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권한을 부여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지구를 다스리기 위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여라, 그리하여 너희들의 자손들이 온 세상에 살게 하고 온 지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창세기. 1:28](#)GNT).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자손들—즉 하나님의 지구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함께 살면서 전세계를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드는 일에 참여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독자에게 그것은 익숙한 개념입니다. 한가지 불분명 한 것은 과연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아담과 이브가 전부였나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가족 또한 거기에 있었습시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셨고—살고 계신 곳이며, 그의 가족들 또한 같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하나님의 천상의 가족—과 함께 우리가

살아 갈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원래 그렇게 되도록 의도 되었던 바이고, 또 그렇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늘나라가 새롭고, 세계화 된 지구에 다시 돌아 온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요한계시록. 21-22](#)).

우리의 운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족들이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였던 시대로 거슬러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제 3장

과거와 미래의 왕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의회에 대해서 간략한 서론을 논의했습니다—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가족들과 대책 위원회에 대해서도.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예수님과 사탄과 같은 중요한 인물들이 그 상황에 얼마나 잘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눈 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해 다시 되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회를 통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지구상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입니다—그것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덴—하나님의 본사

당신이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일이 맨 먼저 머릿속에 떠올르시나요? 저와 얘기를 나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를 생각한다 합니다. 에덴은 그들의 고향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하신 장소입니다 ([창세기. 2:15-25](#)).

그런데, 에덴은 또한 *하나님의 본향*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에덴 동산을 일컬어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 28:13; 31:8-9](#)). 정말이지,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로 놀랄 만한 일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일컬어진 직후에 에스겔서는 그 곳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불렀습니다([28:14절](#)). 고대의 많은 종교들은, 화려한 정원들과 접근할 수 없는 산들을 신들의 본향이라고 여겼습니다. 성경은 에덴에 대해서 두 가지의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본향이며, 따라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 곳은 하나님의 본부 또는 본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그의 의회가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

성경 속의 가장 중요한 구절들 중의 하나가 우리들에게 귀뜸해 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의회가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것 입니다. [창세기 1:26](#) 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LEB, 더욱 강조됨. 주: (LEB) *Lexham English Bible* **렉스햄 영어 성경**). 하나님은 한 무리에게 그의 의도를 발표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 하셨던 건가요? 그의 천사군—하나님의 의회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다른 멤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모르는 어떤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그 무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셨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는 이해하기에 쉬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친구들에게 “피자 좀 먹자!” “이것 좀 해 보자!” 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놓치기 싫어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내리실 때 그 무리를 포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아 왔던 다른 신성한 의회의 회기와는 달리, 하나님의 의회의 구성원들은 이 결정을 내리는 데는 참여 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바로 다음 성경 구절에서 창조 되고 있는 그 때에도 ([창세기. 1:27](#)), 하나님께서는 홀로 창조에 임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입니다. 저의 피자 비유로 돌아가서, 만약 제가 말한 것에 따라 모든 사람을 피자 가게로 데려가서 제가 돈을 내겠다고 우긴다면, 제가 그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유일한 존재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이야기 입니다. 하나님의 의회의 천사들은 그런 종류의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특이한 점을 만듭니다. [창세기 1: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되었다(“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LEB, 강조됨). [26](#) 절에서 “*우리들의 형상*”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사실상 아무 일도 아닙니다. [창세기 1:26-27](#)절에 나오는 “*우리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 과의 교체는 무척이나 흥미로운 사건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듭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존재는 무언가 공통되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인간도 그것을 같이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점에서 닮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회의 천사들과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무언가” 를 의사소통 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1:26](#) 절에 대한 더 나은 번역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가진 지능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 받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을 잃어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현상은 잃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간이기를 거부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구상이 되어 있고, 언제나 인간이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점이 왜 인간의 인생이 성스러운지에 대한 이유 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표 할까요? 우리는 전 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보이지 않는 대책 위원회와 함께 그의 권능을 나누어 가지신 것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인간들과도 그것과 똑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의 가장 높으신 왕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통치를 영적인 세계와 인간 세상의 가족들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갈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 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즐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여야 하는지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궁극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 졌고, ([골로새서.](#)

1:15)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인상이라고 불리어 집니다([히브리서. 1:3](#)).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가야 합니다 ([로마서. 8:29](#); [고린도 후서. 3:18](#)).

두 의회, 하나의 운명

이 모든 것에는 숨은 취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 차리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행정부—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의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더불어 천국의 가족들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영원히 그를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졌습니다. 원래, 지구도 그렇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과 이 세상이 교차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의회의 구성원들은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28](#))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임무였습니다. 그들은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관리자들의 수장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할 일은 하나님의 왕국을 번성시키기 위해, 지구상에 널리 번성하고 에덴 동산을 전 지구로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단지 두 사람에게는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자손들을 낳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와 그 자손들은 실패 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맙니다. 만약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지구는 점차적으로 전세계가 에덴 동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행성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용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부터 그 나머지 인간들은 아담과 이브의 발자국을 따르게 운명이 정해 졌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중재가 없으면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23](#))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의 가족들과 함께 하며 그의 의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는 발상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떤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그것은 왜 성경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나타내는 지 설명하고 있습니다([요한복음 1:12](#); [11:52](#); [갈라디아서. 3:26](#); [요한일서 3:1-3](#)). 그것은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는지에 대해 묘사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5-6](#); [로마서. 8:14-6](#)).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과 그의 왕국의 "상속자" ([갈라디아서. 4:7](#); [디도서 3:7](#); [야고보서 2:5](#))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후서. 1:4](#); [요한일서 3:2](#))로 불려 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허용한다고 하셨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요한계시록. 2:7](#)). 또한 하나님께서 왜 그의

나라의 통치는 ([요한계시록. 2:26-28](#)) 물론 하나님의 왕좌 조차도 ([요한계시록. 3:21](#))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지 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 전진하여 다시 에덴동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 지구 위의 세상에 다시 돌아 올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적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후 세계에서 할 일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원래부터 생산을 돕기 위해 하려던 것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프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곁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풍부함을 지닌 흠 하나조차 없는 창조물, 부활한 예수님, 그리고 우리 동료 형상들, 인간과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발견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이 모든 것에서 뻗어져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물론 그의 계획까지도 대표하고 있다는 의식적인 생활은—아직도 우리가 그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을 대하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초의 생각은 전체의 지구를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확장하는 데 인간이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자손들을 번성 시키고 창조물에 대한 주인이자 관리인이 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창세기. 1:26-28](#)). 그 계명은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 이후에도 잊혀 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한 실패는 그 무시무시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도 반복 되었습니다([창세기. 8:17; 9:1](#)). 비록 에덴 동산은 잃어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 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나님의 왕국—는 예수님이 재림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전면적으로 다시 돌아 올 것입니다([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과 매우 닮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 어디에서나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지구상에서 에덴 동산을 복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예수님께서 그의 계획을 절정에 이르게 하실 날을 기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인—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기는 의식적인 사고방식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로운 점을 널리 전파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 또한 그것을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만남들에 대한 기억은 그들의 삶과 그들이 접촉한 사람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파문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과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는 삶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짧은 경험입니다. 타협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삶이 성스러운 것이라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을 다루는 중대한 윤리적 결단을 넘어서까지 확장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관계가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인종주의는 설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데 있어서 불평등이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남용이란—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정부기관에서—신을 섬기지 않는자의 사악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을 대할 때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모든 일이 영적인 소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합법적인 임무는 우리의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이동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료 인간에게 축복을 하는 것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아닌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직자들을 그들의 업무 기술서 때문에 더 성스러운지 또는 더 특별한지에 대해 살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를 대표하는가에 관해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어둠에 맞서 대항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삶을 같이 나누든지, 그렇게 하지 않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그 기회는 구경거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기회는 오로지 채택되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이 굉장했던 만큼, 그 환상은 대단한 속도로 사라 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합니다. 불완전한 존재—비록 천상의 존재라고 할지라도—의 손에 주어진 자유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제 4장

천상의 반란

저는 앞장에서 불완전한 존재들의 손에 자유 의사를 맡긴다면, 천사이건 사람이건 간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하면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것은 절제된 표현입니다. 성경의 앞쪽 부분에서 나오는 그 재앙들은, 그 모든 재앙이 사람과 초자연적인 존재 모두가 연루된, 그 주장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휘권을 초자연적인 왕국의 신성한 존재들과 지구상의 인간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려고 결정하셨다는 것을 상기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 입니다.”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 ([창세기. 1:26](#), 강조됨)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그러한 것 입니다. 영적인 존재와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누어 가지면서 협동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은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자유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 의지라는 것이 없었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 의지가 없으면 사랑이나 자기 희생과 같은 개념들은 죽어 버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사랑”에 대해 프로그램 되어 있고 그 사랑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대본에 있는 말들과 행위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저로 하여금 스타 워즈 오리지널 영화의 마지막 편인 *제다이의 귀환*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오비완 케노비의 영혼이 루키에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쓰 베이더는 “이제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기계에 가까운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 했습니다. 베이더는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고 황제로부터 루키를 구합니다. 그는 단지 프로그램 된 기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결정은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그것은 인간성—즉, 그 자신의 자유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에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지능적인 존재에게 자유를 허락 한다는 것은 그들이 나쁜 선택을 할 수 있고, 의도적인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완벽한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이십니다. 이것이 왜 에덴 동산에서의 일들이 잘못 될 수 있었고, 실제로 잘못 되었고, 현재도 잘못 된 것입니다.

낙원에서의 문제

에덴 동산의 배경을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이브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회와 함께 거기에 계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나머지 지구를 “다스리기” 위한—에덴 동산의 삶을 온 땅에 퍼뜨리기 위한—천사와 인간의 합동 본부입니다 ([창세기. 1:26-28](#)). 그러나 의회 안의 한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에 불만을 가집니다.

우리가 방금 [창세기 1](#)장에서 보았듯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은 다른 천상의 존재들의 집이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강조됨). 이 구절은 우리가 [창세기 1:26](#)절(“우리의 형상”)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주요 등장 인물인 뱀이, 진짜 뱀이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뱀을 동물원의 유리 진열장 안에 가두려는 노력은 허사일 것이며, 그는 그런 것을 즐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천상의 존재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9](#) 절은 그를 악마 즉, 사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요한계시록 12:7-12](#)절에 근거하여 추정하기를, 천지창조를 하고 곧바로 천사들의 반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용에게 대항해서 싸우고 용과 그의 추종 천사들은 강력히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하지 못하고, 천국에서 그들을 위한 장소도 더 이상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7-9](#)LEB) 주: *Lexham English Bible* (LEB), 렉스햄 영어 성경.

하늘에서의 전쟁은 메시아의 탄생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4-5, 10](#)LEB):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성경은 에덴 동산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의 형상을 받은 그 어떤 존재 —사람 혹은 천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거나 반란에 가담한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암시도 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상황은 극적으로 전환 됩니다.

뱀의 죄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에 반대 할 것을 선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가업에(말하자면) 함께 참여 하기를 결심 하셨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지구 전체로 확장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그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는 마음 속으로 말했습니다,“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사야. 14:13](#)NLT).
주: New Living Translation (NLT) Bibles, 새 생활 번역 성경.

그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뱀의 기만으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뱀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축출을 당하였고, ([에스겔. 28:14-16](#)) 죽음이 지배하고 영생이 없는 땅—성경의 문체로 해석해 보면,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12](#))—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는 대신에, 그는 죽음의 주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구상의 영생을 잃어버리는 사건 이후에 그 강력한 적군은 이제 사람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인류는 이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핵폭발의 낙진(재미있게 표현하자면)의 여파는 저주의 연속이었습니다. 뱀에게 주어진 저주는 예언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브의 후손들과 뱀은 불화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창세기. 3:14-15](#)LEB). 누가 이브의 후손일까요? 인간입니다. 그리고 누가 뱀의 후손인가요? 글썄요, 그건 좀 더 추상적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몇 가지 예를—예수님을 증오했던 유대의 지도자들 같은—보여 줍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요한복음 8:44](#)).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배신자 유다를 일컬어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70](#)). 바로 가롯 유다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모든 존재가 뱀의 후손입니다.

나쁜 종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발생 하였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자손 중 하나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3:12](#)). 성경 이야기 속에 인간의 인구가 증가 할수록, 악의 숫자도 증가 하였습니다 ([창세기. 6:5](#)).

이제 또 다른 초자연적인 범죄가 발생합니다. 비록 그것은 주일 아침 설교에서 많이 토론 되어 지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 죄악이 확장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주었던 범죄였습니다. 이번에는 한번의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5](#) 절에 보면 사악한 전염은 인간에게 널리 퍼진다는 이야기는 [창세기 6:1-4](#)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인 지구상의 자손들, 즉 네피림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다지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 나타난 부분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성경 밖의 유대인의 전통,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잘 알고 있고 또한 그들의 저술에도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와 유다는 대홍수 이전에 죄를 지은 천사들에 대해서 기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4-6](#)절 GNT; 또한 [유다서 5-6](#)장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것의 일부는 성경 밖의 유대인의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범죄를 저지른 하나님의 아들들은 최후의 심판 날까지 땅 밑의 감옥에 갇혀 있다—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지옥에서 징역을 살고 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성경의 표현을 빌리면“그리스도 재림의 날”)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성경 학자들에게 베드로와 유다의 자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들 중의 하나는 에녹1(에녹전서)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그것은 비록 성스럽거나 영감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초기 교회의 예수님 시절의 유대인과 기독교인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유다는 그 내용의 일부는 매우 중요해서 그들의 문서에 포함 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에게 자신들의 천상의 지식을 주어서 “도움”을 주기를 원했거나(그리고는 탈선을 하게 되었고), 또는 그들 자신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방하기를 원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악마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대홍수 때 또는 그 이전에 죽은 네피림의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지구를 떠 돌면서 인간을 괴롭히고 다시 체현되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다음의 성경 속에는, [창세기 6:1-4](#) 절에 나오는 네피림의 자손들은 아나킴이나 르바임으로 불려 집니다([민수기. 13:32-33](#); [신명기. 2:10-11](#)). 르바임의 일부는 뱀이 땅으로 내다 쫓힌 장소인, 죽은 자의 지하 왕국에 나타납니다([이사야. 14:9-11](#)).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후에 그 장소를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관념들은 초기의 유대 작가들이 [창세기 6:1-4](#)절의 위협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와 인간이 공존하는 그 에덴 동산을 그들의 방식대로 다시 만들려고 시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치 원래의 적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변경은 나쁜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1-4](#)절의 이야기는 뱀의 후손들의 끔찍한 반항—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반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쁜 일이 다가 오고 있는 전조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절에는, 약속의 땅이 거인 부족에 의해 흠어 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려고 할 때 반대자들의 일부는 충돌하였습니다. ([신명기. 2-3](#)). 그 거인들은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불려 졌습니다. [민수기 13:32-33](#) 13장 32-33절에서는 그들은 아나킴으로 불려 졌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네피림의 살아 있는 자손들이라고 말해졌습니다—[창세기 6:1-4](#)을 다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시절까지 이런 거인들과 싸워 왔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처치하였고([사무엘상. 17](#)), 다윗의 군사들은 골리앗의 형제들을 죽여서 그들의 위협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사무엘하. 21:15-22](#)).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뱀에 대한 예언자의 저주와 뒤이어 일어난 천사들의 범죄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영적인 전쟁의 초기 무대입니다—선과 악의 전쟁,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 간의 기나긴 전쟁. 그것은 두 개의 왕국: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쟁터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들은 한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의 운명에 관계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은 신성한 경쟁을 가지십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 의지의 반대세력이 영적인 세계와 인간의 내부에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천국과 지구를 재통합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적대적인 개입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인간은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은 변하거나 번복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긍정적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한편 하나님에 대항하는 긴 전쟁은 하나님의 형상(하나님의 자유의 속성을 공유 할 인간과 천사)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악의 원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체를 불복종하게 하시려고 부추기셨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불복종 하도록 운명 지으셨다는 힌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신다는 사실이 사람으로 하여금 미리 운명을 정해지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성곽도시 그일라를 구해 내었을 때를 묘사하고 있는 [사무엘상 23:1-14](#) 절과 같은 성경 구절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 이후에, 사울 왕은 다윗이 그 성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 차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왕좌를 빼앗을 지도 모른다는 피해 망상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한 동안 줄곧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그일라 성의 성벽 속에 다윗을 가둘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그일라에 군대를 보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계획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나를 배반하여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리고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 오겠나이까? 오 주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올 것이다 ...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사무엘상. 23:11-12](#)NLT)

다윗은 그때 우리 중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일을 하였습니다—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최대한 빨리 그 도시를 빠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하나님의 선견지명이 운명을 예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예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반란과 인간의 실패(에덴동산으로부터의 추방)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선견지명은 운명 예정설을 요구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실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의 일과 가능한 일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등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역, 천사들의 반란과 천사의 유혹으로 인한 인간의 반란, 이 두 가지 사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지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게 한 원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시대에서 경험한 악에 대한 시각도 똑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추방에 대해서 미리 예지하고 계셨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인간이 죄악과 실패 속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솔직하게 생각해 보신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실패 들을 운명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우리가 그 죄를 짊어 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그 죄를 선택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 하셨기 때문이었다” 또는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운명 지워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는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이렇게 확증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 가셨느니라”(로마서. 5:6-8).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짓을 할 것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알고 계십니다—우리 또한 경험에 의해 알고 있습니다—나쁜 일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비록 기독교인이라고 할 지라도. 악은 세상에 널리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그리고 천사들)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거대한 계획을 잘 이루어 지게 하기 위해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운명 짓거나 또는 끔찍한 범죄와 죄가 필요한 뒤틀린 신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하나님께서는 악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악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악을 극복하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심판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순간 바로 악을 제거 하시지 않으시는 지에 대해 질문을 하실 것 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든 천사이든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지 못한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체도 제거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악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천상의 대리인들과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나라의 통치에 동참하게 하려던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큰 실수라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 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하고 바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혼 없는 노예 또는 로봇이 안 되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 의지를 갖게 하는 것에 대한 대안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속성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것 또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발상을 너무 사랑 하셔서 대안적인 결정을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들어 온 이후, 인간을 구원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시 재개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고안하셨습니다([요한계시록. 7:17; 21:4](#)).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긴 전쟁의 관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투 전략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을 취하시기 전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제 5 장

우주적인 지형

전 장에서 살펴 보았던 천상의 탈선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둘 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의 복구를 겨냥한 초자연적인 반란이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또 다른 반란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이 반란은 우리 모두가 아직도 그것의 일부분인 곤경을 자초하였고, 그리고 그 곤경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원전략을 위한 거대한 투쟁은 차츰 악화되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바벨탑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창세기. 11:1-9](#))는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의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성서적 해석이다. 어린이들은 주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땅 위의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사건으로 배웁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아담과 이브에게 내려 주었던 계명을 다시 부여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통해 그의 통치 영향력을 펼치시기 위한 일에 착수 하셨습니다. 또 다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인간들이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또는 그렇게 생각하였던 이유로 그들의 마음 속에 반역이 생겨 났습니다. 인간들은 서로 흩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벨탑을 세우기를 결정합니다([창세기. 11:4](#)). 그 논리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놀라운 탑을 세워 유명하게 되는 것은([창세기. 11:4](#)) 확실해 보입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그들이 지구상에 흩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건가요?

그 대답은 바벨탑 안에 있습니다. 성경 학자와 고고학자는 고대 바빌론과 그 도시들 주변에 지구라트(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전)라고 불려진 탑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신전의 목적은 인간들이 신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신전 구역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통치를 세상 널리 알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드는 것 대신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한 장소에 내려 오시게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의 의회의 구성원들에게 다시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창세기. 11:7](#)^{GNT}, 강조됨).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였고, 인간들은 서로

떨어져서 흩어 졌습니다. 그 사건은 [창세기 10](#)장의 앞부분에서 나열된 그 나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신들과 그들의 나라

[창세기 11](#)장이 바벨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유일한 서술이 아닙니다. [신명기 32:8-9](#) 절은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러나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어떤 성경 번역에는 첫 번째 문장의 “하나님의 아들들” 대신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벨탑의 시절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이후에서야 오로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습니다([창세기. 12](#)).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란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 가장 오래된 성경사본인 사해 문서에서 발견된 전문 용어입니다. ESV(영어 표준 역주 성서)가 옳은 번역입니다. 주: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단어선택은 중요한 것 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나누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서 나누어 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그의 신성한 의회의 구성원들에게 할당 했습니다. 이것이 왜 다른 나라들이 다른 신들을 모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바벨탑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과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의 반란이 그 생각을 변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의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들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결정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들을 심판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왕국의 계획을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신명기 32:9](#) 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몫” 입니다. 바벨탑 이야기의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2](#) 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들에게 대한 나라들의 할당은 전체 구약 성서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나머지의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들의 신과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과 대립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하신 일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향은 그 나라들을 영원히 저버리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땅 위의 모든 가족들은 축복 받을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창세기. 12:3](#)NLT 주: (NLT) New Living

Translation).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을 그의 가족으로 다시 포함 시키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설교에서 이교도 철학자들에게 그는 말 하였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지구 전체에 달하는 모든 나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전에 언제 그 나라들이 세워지고 망하게 될지, 그리고 그 국경선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으로되—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도행전 17:26-27](#)NLT)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천사의 무리” 들을 경배하지 말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 하셨습니다([신명기. 4:19-20](#)), 하늘의 의회의 구성원들을 위한 인식표는 다른 곳에서 발견 되었습니다([열왕기상 22:19](#)). [사도행전 17:26-27](#) 절은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든 그 국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뒤를 쫓아 오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들을 지배하던 신들은 이 계획을 두 가지 방법으로 방해 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시편 [시편 82:1](#) 절에서 하나님께서 신들의 의회를 결성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 전체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 해 줍니다. 그 나라의 신들은 나라의 통치를 불공평하게 했습니다—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정의의 원칙에 반대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을 기소 하였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언제까지 악인의 편을 들려고 하려느냐” ([시편. 82:2](#)NLT). 그들의 불공정에 대한 맹공격을 두 구절 더 언급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신들이 흑암 속을 걷는 나라의 백성들을 도와 진정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을 어떻게 하여 실패하였는지를 서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압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심히 무지합니다! 그들이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시편. 82:5](#)NLT).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신명기. 29:26](#); 또한 [32:17](#)참조) 신들을 경배 하는 것에 흥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신속하고 엄하였습니다([시편. 82:6-7](#)):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 같이 넘어지리로다” (NLT).

그 신들은 불멸을 잃어 버렸고 사람들처럼 죽어야 합니다([시편. 82:7](#)). 우리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 심판이 무언가 세상의 종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34:1-4](#)). [시편. 82](#)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나라의 소유를 되찾게 되시기를 희망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신약에서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신명기 32장의 세계관

신명기 32장의 세계관 때문에, 성경의 지형은 장대합니다. 지구는 여호와께 헌신하는 거룩한 곳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의 영역이어야 했습니다. 이 세계관은 성경 속의 많은 부분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서의 다니엘서는 외국 나라들은 천상의 “군주”에 의해 지배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다니엘. 10:13, 20-21](#)). 또 다른 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는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 블레셋 영토로 들어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6:19](#) 절에서, 다윗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영토로부터 나를 쫓아내어 다른 신을 섬길 수 밖에 없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GNT). 다윗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존재하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룩한 땅입니다, 진정한 신에게 속한 땅입니다. 다윗은 다른 신의 영토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약 성서의 스토리는 위의 이야기의 요점을 말해 주는 것이며,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시리아)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나환자였습니다. 엘리사의 지시대로 그 자신이 요단강에서 일곱 번을 씻고 난 후에, 그의 문둥병이 기적처럼 나았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5:15](#)). 선지자는 아무 보상도 받지 않았습다. 그래서 나아만은 노새 두 마리가 옮길만한 분량의 흙을 노새에 싣고 집으로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겸손하게 부탁했습니다. 흙? 왜 그는 흙을 달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과 똑같은 생각을 신약성서에서 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은 적대적인 신의 존재에 대해 다양한 용어를 사용 했습니다([에베소서. 1:20-21; 3:10; 6:12; 콜로새서. 1:16; 2:15](#)): 통치자, 권세, 주권, 왕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 일까요? 그들은 지리적인 통치자의 지위를 묘사하기 위한 잘 알려진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 보낸 두통의 편지는, 그가 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음행을 범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쫓아낼 것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 하였습니다([고린도전서. 5:1-13](#)). 이상하게도, 그는 그들이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 줄 것이다”라고 기록 했습니다([고린도전서. 5:5](#)). 도대체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의 서술은 구약 성서의 우주 지리학적인 세계관의 배경에 한해서만 납득이 가는 말입니다. 구약 성서의 신학에서는, 여호와의 영역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 주신 땅 즉,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땅을 신성화 되게—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존재는 교회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기를 회복하고 캠프를 설치 할 때, 이스라엘의 캠프가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십계는 중앙에 놓여 졌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였고, 여호와의 존재는 예배당에 계셨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땅을 거룩한 땅으로 신성하게 하였고—여호와와 그의 사람들은 그 집에 계셨습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존재는 믿는 자들 안에 내재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당인 것입니다([고린도전서. 6:19; 고린도후서. 6:16; 로마서. 8:9](#)). 그것은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육신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며,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명쾌하게 표현 하였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7, 26-29](#)NLT)

성도들—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이 바로 성역이기 때문에, 죄악은 반드시 추방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렀던 땅 인근의 영토와 그리고 그 주변의 다른 신들의 지배하에 있던 국가들은 불경스러운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는—그리고 현시대에도—그 세계는 불경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회개하지 않은 신도들을 그 세상, 즉 사탄의 영역으로 추방 하라고 명령 합니다. 교회로부터 추방된다는 것은 성스럽지 못한 영역으로 쫓겨 난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죄악이 속한 곳 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바벨의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장대한 우주적인 지형은 이스라엘의 투쟁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복음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업적에 대한 좋은 소식(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 선택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갈라디아서. 3](#)). 제자들이 세상으로 진출함에 따라, 사탄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토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전진하고, 국가들의 지배권을 다시 회복 합니다.

여기서 배울 교훈은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흑이 세상에 침투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세력들의 인질입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무기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국과 권력에 직접 맞설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물려 받은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선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직한 복음의 사역은 전세를 뒤집을 것입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은 영적인 전투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장에서 더 알아 보겠습니다.

또 다른 교훈: 진정한 성도들이 모인 집회가 바로 성지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외형, 건물, 그리고 집회의 크기 등은 하나님의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20](#)).

그 곳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그 규모가 작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의 집회는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모든 교회는 같은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마의 세력은 승리하지 못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살펴 볼 때 우주적인 지형의 발상에 대해 다시 논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전선은 그려 졌습니다. 세상의 그 국가들은 하나님에 의해 심판 받고 상속권을 박탈 당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뭇의 영토와 백성들을 개척할 때입니다.

제 6장

말씀, 이름, 그리고 천사

우리는 지난번 장에서 성경 속의 우주적인 지형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바벨탑의 인간의 반란에 대응하여,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저버렸습니다. 그는 그 나라들을 천상의 의회의 구성원들(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신명기. 32:8-9](#)). 지금은 버려진 나라들을 대체하기 위해,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과 그 자신의 나라를 창조하실 것이다. 그들은 이 땅 위의 하나님의 나라를 재개하기 위한 대리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신들과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맞서는 치열한 적군이 됨으로써, 그 임무는 처절한 투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은 아브람이라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후에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벨탑의 심판이 있던 직후에, 하나님은 그를 방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만나다

많은 성도들이 [창세기 12](#) 장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방문에 대해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전혀 본 적이 없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내 해 주시기로 약속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신이 되시고, 그리고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 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아들로부터 사람들의 수는 많아질 것이며—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땅 위의 가족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나라들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천국으로부터의 목소리, 또는 아브라함의 머릿속의 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아마도 하나님은 꿈 속에 오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만남을 선지자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가지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극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과 아브라함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 6-7](#) 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였습니다. 3장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창세기. 15:1-6](#)).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머리 속에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의 자손이 하늘의 못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리라는 중요한 사실을 입증해 보여 주셨습니다([창세기. 15:5](#)).

하나님께서서는 다른 경우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8](#)).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인 이삭에게도 똑같이 하였고 ([창세기. 26:1-5](#)),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8:10-22; 31:11-12; 32:24-30](#)).

“말씀” 또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견되지 않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표현방식을 인간의 의사전달 형태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들 중에 하나는 [사무엘상3](#) 장에 나옵니다. 소년 사무엘이 잠을 청하려고 할 때 어떤 음성을 계속 듣게 됩니다. 결국, 사무엘과 함께 살면서 그를 위해 일했던 선지자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 차렸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로 다시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GNT).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태로 임하신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은 사무엘을 서 있게 했고, 그리고 사무엘상 3장의 마지막 부분([사무엘상. 3:19](#))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상시적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의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일컬어진 성경인 [예레미야 1](#)장에서,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하나님 자신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었습니다 ([예레미야. 1:1-9](#)).

인간의 형태로 오신 하나님

인간의 형태로 오신 하나님이란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오실 때보다 훨씬 오래 전의 구약성서의 유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참된 본질, 참된 영광의 존재, 그리고 삶에 대해 볼 수 없다고 넌지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마주친다면 죽음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창세기. 32:30; 신명기. 5:24; 사사기. 6:22-24](#)).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를 인간의 마음이 접근할 수 있게 그 어떤 것을 통해 여과 하셨기 때문입니다—불, 구름,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자주 사람으로 나타 나셨습니다.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인간의 형태로 임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의 천사”와의 만남으로 묘사 되었습니다. 이 천사는 친숙한 캐릭터입니다. 예를 들면, 그 천사는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출애굽기. 3:1-3](#)). 가시덤불 속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뱀엘에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창세기. 28:10-22](#)). 뱀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밝히신 곳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천사는 다른 꿈 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전에 뱀엘에서 그를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하셨습니다([창세기. 31:11-12](#)).

수많은 성서 학자들이 이 천사를 하나님 자신으로 규정 짓기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몇 가지의 확실한 암시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암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내려 주시고 난 바로 직후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여정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출애굽기. 23:20-22](#))

이분은 보통의 천사가 아닙니다. 이 천사는 죄 사함을 받게 하실 수도(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이상하지만 중요합니다. 그“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존재 또는 본질인 하나님 자신을 언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30:27-28](#) 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여호와와의 이름을 사람의 것으로 채택 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뻑뻑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범람하는 물살 같은즉.

오늘날까지도 의례적인 유대인들은 하셈(“이름”)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완곡어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출애굽기 23:20-22](#) 절의 말씀을 다른 성경구절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불타는 덩불 속에서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는 그 자신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시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 하셨습니다 ([사사기. 2:1-3](#)).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여호와([여호수아. 24:17-18](#))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신([신명기. 4:37-38](#))이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같은 용어들은,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존재를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사람의 형태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점에 대해서 가장 흥미진진하면서도 애매모호한 구절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겨우 그것을 알아 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종의 장면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야곱은 요셉의 자식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축복 하는 가운데 그의 인생의 일화를 회상해 냅니다—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의 축복을 이렇게 시작 했습니다([창세기. 48:15-16](#)):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자께서

그때, 믿기 힘들게도, [16](#) 절에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이 소년들을 축복하시기를” (NIV, 강조됨). 그는 마치 두 명의 다른 사람, 하나님과 그 천사, 에게 얘기하듯이 “그들이 이 소년들을 축복하시기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 속에서 그들을 함께 융합 시켰습니다: 그가 이 소년들을 축복 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사사기 6](#) 장의 기드온의 부르심 입니다. [사사기. 6:22-23](#) 절에서는, 같은 장면에 여호와와 하나님의 천사가 같이 나타 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조차도, 하나님은 한 명보다 많은 존재,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이름, 그리고 천사

우리가 지금껏 설명 해 온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그러한 것들은 모두 신약성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약성서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형태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1](#) 절에, 사도 요한은 기록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 절에,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하였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이 요한의 복음서를 읽을 때, 그 남자 또는 그녀의 마음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조차도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56-58](#)).

모세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인 주님의 사자를 불타는 덩불 속에서 만났고, 그 후에도 그랬습니다. 그 천사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해 내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의 단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유다서 [1:5](#)). 그 천사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천사는 삼위일체 가운데 두 번째 분이셨습니다—나중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이름은 이 천사로 하여금 모든 다른 천사들로부터 특별하게 하였습니다. 가끔은, 신약 성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게 만든 공판에 잡혀 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의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의 존재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 보였나이다.....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지게 하였고.”

(요한복음 17:5-6, 26). 마지막 진술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말씀하려 하신 건가요?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그것은 여호와 라는 것을. 그들은 구약 성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수한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다고 말씀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서 말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눈 앞에 바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인간의 육체를 만드신 그 분이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서적인 지형을 터득하기 위한 공부를 충분히 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서의 이야기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정신적인 갈등을 지배하고 있는 맥락 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승자가 독차지하는 신들의 충돌입니다.

성서적인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적들은 한때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나 각자 자기의 길로 가 버렸습니다. 그들 반역자 신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암흑의 세력,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왕권들이며, 바울이 묘사한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6:11; 골로새서. 1:16) 그들은 아직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 성서 어디에도 그들이 가 버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고—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사랑하는 인간의 가족들과 영원한 재회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흑의 세력들 중 하나는 죽음의 신입니다. 그는 인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에 대한 그의 속임수가 영원불멸을 잃어 버리게 한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목표—여호와와 백성들을 몰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 갈 때에, 하나님의 경쟁적인 아들들의 알 덩어리(후손)들이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암흑의 세력의 목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략은 변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게 하였고, 그러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그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추방하셨습니다.

그러나 암흑의 세력들은 또 다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계획에 대해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반란의 저주가 예견한 것은, 언젠가, 에덴 동산의 인간의 실수의 결과를 원상태로 돌리게 할 한 사람이 이브의 자손 중에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6-8; 에베소서. 3:10; 6:12). 그들은 어느 적절한 시점에 가서는 약속한 그 분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비록,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듯이,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는 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고 했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감추신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제 7장

교전 수칙

지금까지의 우리의 이야기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백성들을 저버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신들이 그들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하였습니다([신명기. 32:8-9](#)).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다시 시작하실 때에, 언젠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에 따라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신 것은 분명하였습니다([창세기. 12:3](#)). 그러나 나라의 신들은 그들의 권력과 경배를 포기하도록 강요 받아야 했습니다 ([시편. 82:6-8](#)).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가 생기자마자, 이스라엘은 신들의 조준 십자선 안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신가요?

성경 속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창세기. 37-50](#))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갔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형들에 의해 해를 받게 된 요셉의 운명을 바꾸고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창세기. 46:3-4; 50:2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즉시 이집트를 떠나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또한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경의를 표하던 바로([파라오](#))가 죽고 적의를 가진 바로에 의해 그 자리가 대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출애굽기. 1](#)). 하나님께서는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강제 노동을 시킬 것을 예견 하셨습니다 ([창세기. 15:13-16](#)). 하나님은 또한 옳은 때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46:4](#)).

그러면 왜 기다려야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알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성경은 확실한 답을 줍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후 광야에서 기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다시 보내시려고 불타는 덩불에서([출애굽기. 3:1-14](#))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바로에게 “나의 백성들을 가게 놓아 주라” 고 말해라([출애굽기. 5:1](#)). 바로는 이집트에서 육체를 가진 신이었으며 모든 영화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목자들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는 조롱하는 투로 대답하였습니다. “여호와가 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출애굽기. 5:2](#)).

그는 자기를 해칠 답을 내려던 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들을 보내 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출애굽기. 4:21](#)). 하나님께서는 전투를 선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수세기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해 온 이후의 시점에서, 이집트와 그의 신들에 대한 징벌을 줄 때가 왔습니다. 바로의 완악함도 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재앙들은 이집트의 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특별히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출애굽기. 12:12](#); [민수기. 33:4](#))은 바로의 집을 직접 공격한 것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한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출애굽기. 12:29](#)).

바로는 하나님을 조롱하였고 형세는 급격하게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기록 했듯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7](#)).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 시키기 위해서 택한 방법인 이집트를 재앙들로 내리치심은 원하던 효과를 얻었습니다. 가나안에서처럼,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그들의 신들에게 내리신 재앙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여호수아. 2:8-10](#); 다음 성경과 대조하세요 [출애굽기. 15:16-18](#); [여호수아. 9:9](#)).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최종적으로 돌아 왔을 때, 그 교훈을 이렇게 요약 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것을” ([출애굽기. 18:11](#)^{LEB}).

모세가 홍해의 반대편에 서서, 자기 자신에게 반문적 질문을 하면서, 바로와 그의 잃어 버린 군대를 조롱하면서 “신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있으랴?” 라고 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출애굽기. 15:11](#)).

홍해를 지나 이집트를 빠져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 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최근의 지구의 집이자 본부인, 시나이 산으로 그들의 신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지식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들으면서, 세대와 세대를 걸쳐 전해져 내려 온 이야기를 통해 얻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시내 산은 교실인 셈입니다.

이스라엘—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지구의 대표자들

이집트를 탈출 하기 전에 모세는 바로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장자이다..... 내 아들을 풀어 주어 그가 나를 섬기게 하여라” ([출애굽기. 4:22-23](#)^{LEB}).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경우에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의미함—은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창조를 하신 그 때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가족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손수 만드신 사람들과 함께, 그의 창조물인 지구에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이지 않는 가족들과 그리고 인간의 가족들이, 그와 함께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될 모든 지구상에서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인간들을 저버리실 때에 아들이 없었습니다—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처음의 계획으로 돌아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지구상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님에 따라, 이스라엘은 지금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내 산으로 다시 돌아 온 것은 일종의 귀향입니다. 심지어 천상의 의회가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약속의 목격자입니다—율법.

하나님의 율법—하나님의 의회에 의해 전달되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 주실 때에 시내 산에는 천상의 의회가 같이 있었다고 제가 말할 때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으셨나요? 만약 여러분께서 출애굽에 관한 영화를 보신 적이 있다면, 시내 산으로의 여정에 천사들을 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층 더 나아가,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사도행전 7:52-53](#); [히브리서. 2:1-2](#)).

그것은 또한 그 율법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신명기. 9:9-10](#)). 그 쓰여진 언어는 분명 친숙한 것이었을 겁니다—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마치 창세기의 하나님의 천사의 이야기처럼 시내 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그 율법을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후에, 모세와 아론,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칠십 명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음식을 같이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출애굽기. 24:9-11](#)). 마치 최후의 만찬이 예수님 시대의 보혈로 이루어진 새로운 약속을 날인한 것처럼, 이들의 음식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율법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하여 질 수 있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레위기. 19: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신의 가족처럼 뛰어나게 되어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신들과 지구의 모든 사물로부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신성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뒤에 있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신성함은 이상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성함은 하나님과 함께 인정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중하면서 인생의 모든 선한 일들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을 끌어 모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 오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신명기. 4:6-8](#); [28:9-10](#)). 이것이 왜 성경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제사장의 나라” ([출애굽기. 19:6](#)) 그리고 “모든 나라들의 등불” ([이사야. 42:6](#); [49:6](#); 또한 [51:4](#); [60:3](#)도 보세요) 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모든 국가는 아브라함의 자리로부터 물려 받은 것이며 모든 나라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창세기. 12:3](#)).

충성된 신앙

하나님의 뜻에 순중한다는 것은 구원에 대해 얘기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가 성경학교에서 자주 배웠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규약을 따르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이 오지는 않았습니니다. 구약성서이든 신약성서이든, 구원은 결단코 누리 보지 못했고, 심지어는 자격도 없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 중 일부와 같이 믿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저들의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믿어야만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창조 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신들의 신인 하나님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달성하는가 하는 것의 답은 아닙니다—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믿음에 대한 것, 그리고 다른 신에 대한 경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믿음과 충성심으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환심을 사서 얻는 총애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은 간통을 하고 살인을 계획한 것과 같은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사무엘하. 11](#)). 율법에 따르면, 그는 범법자이며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도 짝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 왕은 여호와가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그의 충성심을 다른 신에게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로우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하늘에 오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들이고 그런 다음 다른 신들을 저버림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 다른 신들이 구원에 대해 그 어떤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이름에도 구원은 없다([사도행전 4:12](#))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온전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로마서. 11:17-24](#); [히브리서. 3:19](#); [10:22](#), [38-39](#)). 개인적인 실수는 예수님과 다른 신을 바꾸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그리고 하나님은 그 차이점을 말씀하여 줄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출애굽 과정과 시내 산에서 생긴 일은 수많은 흥미 진진한 상징주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와 다른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내 산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즉시 우리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합니다. 거기에는 칠십 명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없애 버리신 [창세기 10](#)장의 나라들의 수를 센다면, 칠십이라는 숫자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 나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다른 작은 신들 —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신명기. 4:19-20; 32:8-9](#)). 왜 하필 칠십 명의 장로들, 칠십 명의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칠십 개의 상속권을 박탈 당한 나라들 일까요?

그렇게 쓰여진 것은 의도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초기 부처들을 시작하실 때, 칠십 명의 제자들을 내 보냈습니다([누가복음 10:1](#)). 그들은 위대한 위원회의 선구자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통치의 왕국을 위해 그 나라들을 되찾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 왕국은 새로운 글로벌 에덴 동산의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형태를 이룩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22](#). 칠십이라는 숫자의 반복은 하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지구상의 가족, 이스라엘—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잃어 버렸던 것을 되찾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물려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믿는 자는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라. ([갈라디아서. 3:26-29](#)). 그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신들의 나라들을 되찾아 오라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신들의 정신적인 지배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해 내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미를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그의 천상의 가족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들을 통치 할 것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21](#)) 그것은 우리가 바벨탑 이후로 그 나라들을 통치하여 온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체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왜 요한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 이유입니다([요한복음 1:12](#); 또한 [요한일서 3:1-3](#) 와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상 마지막 날에 천사이지만 적군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왜 바울이 신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세상의 법정이 신도들의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하라는 이유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3](#)).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서 천상의 영광을 입을 때, 우리는 천사들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요한일서3:1-3; 고린도전서. 15:35-49](#)) 그리고 현재는 적군의 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요한계시록. 2:26](#))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며, 궁극적으로는 상속권을 박탈 당하고 에덴 동산의 실패로부터 확장된 죽음의 저주를 받고 있는 나라들을 다시 되돌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운명을 믿는 것처럼 살아 가야만 합니다. 구약 성서 계획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로 향해 올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족이—천사의

가족과 인간의 가족—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면서 통치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반란에 의해 붕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해 내면서 다시 복원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에덴의 실패를 되돌릴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창세기. 3:15](#)). 이스라엘이 없이는 우리의 운명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왜 신들과 그 추종자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지워 버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제 8장

신성한 공간

이스라엘은 시내 산에서 일년을 보냅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하나님과 실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다른 과제입니다.

신성함의 개념

구약성서의 수많은 이상한 법과 조항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과는 다르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성격은 매우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나 다른 모든 것들과 완전히 구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은 항상 강화해야 하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마 평범한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성서의 단어에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특이함은 성스러움입니다. 그것은 “돋보이게 하다” 또는 “두드러지게 하다”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하나님의 뛰어난 도덕적 기준들을 반영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관념—비록 그것이 포함되기는 하지만([레위기. 19:2](#)).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단순히 성스러움에 관한 지적인 설명을 기꺼이 해주시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뛰어난 것에 대한 개념을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스며들게 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식절차(상징적 행위)와 성스러운 장소에 다가가는 규칙을 통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남다름”은 어떤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짧은 대답은 “모든 면에서”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성경은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역 사회 생활을 위한 의식절차와 규칙이 그것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있고, 질병, 그리고 불완전함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의 왕국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왕국은 지상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신 지상의 영토는, 그의 존재로 인하여 성스럽고 별세계적인 영토가 됩니다. 우리가 지배하는 영토는 평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것의 정반대 되는 존재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러한 관념들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속죄함을 입은 후에 하나님께서 계신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구약성서의 많은 법규는 이 속죄함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가지 행위와 조건으로 인해 성스러운 영토에 갈 자격이 없는지도(“깨끗하지 못한 존재”로 만들어 졌기에) 모릅니다. 성관계, 피 흘림, 육체적인 장애, 그리고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일부 맹금류 종류(예를 들면, 독수리, 매; [레위기. 11:13-19](#)) 또는 죽은 시체에서 발견되는 짐승들(예를 들면, 도마뱀, 쥐; [레위기. 11:24-40](#))을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들에서 보듯이, 불결함은 도덕에 관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잃음과 연관 되고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양립 불가능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 논리는 간단한 것 같아도, 우리 현대인의 마음에는 낯설게 느껴 집니다. 피와 성적인 유체의 손실은 창조되고 삶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 것의 손실이라고 간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잃음과 관계가 없으며 생명을 부여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체를 잃어 버리고 난 후에 “깨끗함”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유사한 “깨끗함”은 죽은 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불결해 진 그 이후에 요구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성스러운 지역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은 육체의 불완전함 또는 부상으로 인함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한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완전함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율법들은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납득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문제의 해결 방법

“깨끗하지 못함”으로 인해 성스러운 장소에 가까이 가지 못 한다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깨끗하지 않다면 그 제단에서 제물이나 공물을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해결책은 자기 자신의 희생과 일정 기간의 기다림을 통한 정화의식에 있었습니다.

피의 희생이라는 이론은—한 사람이나 사물에게 피를 뿌리는 것은 그들을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된 피는 이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그것은 대체적인 관점을 도입한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셨으니([레위기. 17:11](#)), 짐승의 목숨을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목숨 이외에도 다른 조건들을 받으시어 하나님께 다가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희생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더럽히고 깨끗하지 못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자비로운 대안입니다.

이 가르침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대체 희생물을 허락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을 보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동물의 것보다 더 성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창조 되었기 때문 입니다. ([창세기. 1:26; 9:6](#)).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손을 가질 수 있게 한 초자연적인 힘의 도움으로 그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은혜를 받았습니다([창세기. 12:1-3](#)).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인간의 목숨은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희생물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보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상의 낙원(그리고 지옥)

하나님의 특별하심에 대한 관심은 어떤 생각을—하나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역에 대한—을 전달해 줍니다. “왕국의 탁월함”에 대한 생각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자연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한 곳에 거주하신다면, 나머지의 땅—그것은 평범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적이거나 악마이었습니다—은 그렇지 않았습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는 에덴 동산을 상기 시켜 주는 징표입니다. 많은 교회와 회당의 형태는 사람들에게 에덴동산(천국과 이세상이 만나는 곳)을 상기 시키려고 디자인 되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램프 스탠드는 나무처럼 만들어져 장식이 되었고([출애굽기. 25:31-40](#)),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계약의 궤가 놓여 있던 가장 신성한 곳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장막의 앞에서 지키고 있고 그 뚜껑은 하나님의 왕관의 역할을 하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출애굽기. 25:10-22](#)).

가장 신성한 곳 안에 있는 체루빔(천사)들 또한 에덴 동산과 확실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덴의 체루빔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3:24](#)) 가장 거룩한 곳 안의 체루빔들은 언약의 궤의 뚜껑을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18-20](#)).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 성막의 텐트 구조체는 성전 안으로 옮겨 졌으며 두 명의 거대한 체루빔들은 하나님에 대한 왕좌로서,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 위에 설치 되었습니다 ([역대상. 28:2](#)).

그 성전은 또한 무성한 식물과 동물들의 형상으로 가득한 에덴 동산과 같이 장식이 되었습니다([열왕기상 6-7](#)). 그 건축물에 꽃들, 종려나무, 그리고 석류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간 가족들과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의 그 낙원에 대한 가시적인 상기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주의 지리학의 어두운 면 또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캠프가,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거룩한 땅이라면, 이스라엘 밖의 영토는 성스럽지 못한 땅입니다. 시내산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은 작은 신들에게 주었던 나라들을 저버렸습니다([신명기. 4:19-20; 32:8-9](#)).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되 찾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의 날들 동안, 그들 국가들은 암흑의 왕국이었습니다.

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잊지 못할 세부 사항으로 된 이 교훈을 고향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매년 거행되고, [레위기 16](#)장에 묘사되어 있는 속죄의 날(유대교의 Yom Kippur)에,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에 대한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매력적인 대상의 교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염소가 관여 되어 있었습니다. 한 염소는 희생 되었고 다음 1년 동안의 인간의 더럽힘을 씻기 위하여 그 피는 성전에 뿌려 졌습니다. 그 희생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한”것 이었고 또 하나의 다른 염소는 죽이지 않았습니—a대제사장이 상징적으로 인간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하여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 삼은 후에 광야로 보내 졌습니다. 그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사셀”은 누구 또는 무엇인가요? 어떤 성경은 아사셀이라는 단어 대신에 희생양이라는 말을 이용해 번역을 합니다. 사해 문서 사본의 성경을 보면, 히브리인의 단어인 “문제의”가 적당한 명칭입니다—a악마의 이름. 주: 사해(死海) 문서사본: 사해 북서부 동굴에서 발견된 구약 성서 등을 포함한 고문서의 총칭. 약속된 땅을 향한 광야의 여행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악한 세력들이 그들의 캠프를 해치려는 것이 두려워 악마에게 계속 제물을 바쳐 왔습니다([레위기. 17:7](#)). 광야는 결국, 이스라엘 캠프 밖에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악마의 실체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관습은 멈추어야만 하는 것이며,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그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악마의 신들을 위한 제물이 아니었습니다—a그 염소는 결코 희생되어 지지 않았습니—a대신에,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은 성스러운 땅(이스라엘 캠프)을 최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신약에서 많은 일들이 바뀌었지만, 또한 똑 같은 양상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탁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함은 그의 존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깨끗해짐을 완성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는 초자연적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광야로 나가셨습니다—a그 곳은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만날 수 있는 장소—a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 치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일어 났으며,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심으로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2:14](#)). 예수님께서서는 거룩한 도시의 바깥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3:12](#)) 그 때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 지셨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셨지만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신성하게 하였습니다—a우리를 하나님의 존재에 적합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는 “씻어 졌습니—a” ([로마서. 11:27](#); see also [요한일서 3:5](#)). 비록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성스러운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결합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그러이 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하면서도,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들 보다 정신적인 특혜를 여러 방면에서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 민족의 한가운데 모셨습니—a그들은 우주적인 지형이 진짜로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 가졌던 것만 유일하게 가졌거나, 또 오직 계속적인 하나님의 상기가 우리의

현실이였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다 더 영적으로 발전했을 것이고, 더 하나님을 잘 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약 성서는 그들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장소라고 표시해야 할 교회나 회당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현세의 육체를 “장막” 이라고 불렀습니다([고린도후서. 5:4](#)).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천상의 존재가 교회나 회당과 같은 성소를 가득 채운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9-11](#)).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우리 영혼의 현세의 집이며, 죽을 것이며, 오직 “손으로 만들어 지지 않은 집”에 의해서만 대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1-3](#)). 그 천상의 거주지는—새로운 에덴 동산, 땅 위로 다시 돌아 온 천국입니다([요한계시록. 22:1-3](#)).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의 영혼을 통해 그들 속에 내재하고 계시며, 모든 교회—모든 신자들의 모임—가 바로 성스러운 장소가 됩니다. 이것이 왜 바울이 고린도 신도들에게, 죄를 짓고도 수치스러운 줄 모르고 사는 기독교인들을 추방할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라고 슬픈 어조로 말한 이유입니다([고린도전서. 5:5](#)). 교회는 신성한 땅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바깥에는 사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죄악과 그 스스로의 자기 파괴가 속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초 자연적인 눈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 볼 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땅에 적합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입양 되었기 때문입니다([로마서. 8:15](#); [갈라디아서. 4:5](#)). 당신은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심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13](#)).

우리는 절대로, 단 한 순간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실이 세상에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잊어 버려서는 안됩니다.

제 9장

성스러운 전쟁

성경은 논쟁의 여지가 많은 책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 자주 반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불편하게 느껴 집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전쟁이 여기에 딱 들어 맞는 사례입니다.

왜? 대부분은 살인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차별적이고 너무 철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어떤 도시들에서는 모든 사람들을—남자, 여자, 어린이, 그리고 가축까지도 반드시 다 죽여야 하는 것이 필요 했을까요? 왜 그 지역의 주민들을 항복할 기회를 주지 않았나요? 그 사람들을 대량 학살 하는 것보다 추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 반대 의견들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만—그 대답들은 그 문제들만큼이나 기독교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그 정복의 이유나 동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바라 보았을 때만 그 성서적 해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자연적인 논리

약속된 땅을 위한 전쟁은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거주지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전쟁의 포상이라는 그 두 가지 요인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이해 속에 깊게 뿌리 박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그 두 가지를 모두 얘기 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바벨탑으로부터 비롯된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후에, 하나님이 결심을 내리셨고, 하나님은 그 나라의 사람들과 더 이상 직접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의 천상의 의회의 멤버(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게 지정합니다([신명기. 4:19-20; 32:8-9](#)).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그의 아내 사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아이, 이삭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시편 82](#) 장에서 작은 신들이 부패하게 된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불공평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그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했던 가나안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점령하고 있던 민족들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고 그 나라들의 신들도 이스라엘을 멸망 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욱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국경에 도착했을 때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그 영토와 거주민에 대한 정보를 보고 받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 같은 “젓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땅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돌아 옵니다([민수기. 13:27](#)). 그러나 그때 그들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민수기. 13:32-33](#)).

우리는 네피림에 대해서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창세기 6:1-4](#) 절로 다시 가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불길한 자손들이었으며 인간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아낙김 거인(주: 성경에는 ANAK) 들은 그들의 자손들이었으며, 그리고 더 많은 수가 가나안 땅 전체의 나라들과 도시들에 산재해서 있으며 이스라엘은 그 땅을 취하려다가 패할 수도 있었습니다([민수기. 13:28-29](#)). 약속의 땅과 그의 신들을 정복하는 것은 전에는 어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크기의 신체를 갖추고 있는 전사들과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정탐꾼만이 아나킴을 패배시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들이 패배할 것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하였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완전하게 파괴해 버리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그들은 이렇게 징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민수기. 13:31](#)).

하나님께서서는 응답 하시기를, “이 민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멸시하려느냐? ([민수기. 14:11](#)) 그리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무척 화가 나서서 이스라엘의 상속권을 박탈하겠다고 하셨습니다—그 옛날 바벨탑에서 그 나라들에게 행하신 바로 그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세와 함께였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게 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민수기. 14:12](#)).

모세는 하나님께 노여움을 푸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민수기. 14:13-19](#)).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그 백성들의 불신앙은 간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한가지의 교훈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말에 따라 용서를 하였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며, 너희 중에서 이십 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들은 너희가 거절한 땅을 보리니 ([민수기. 14:20-31](#))

“열 번”이라는 것은 “몇 번이고 계속해서”라는 의미의 성서 시대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창세기. 31:7](#); [욥기 19:3](#)).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불평에 대해 관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닌 것에 대한 감격스러움을 느끼는 대신에, 그들은 그들이 먹어야만 하는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하였고([민수기. 11:1-14](#); [31-35](#)),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불평도 하였습니다([민수기. 12:1-16](#)).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심은 다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불신앙은 끔찍한 비용을 치르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성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사십 년을 광야에서 헤매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의 기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한 땅을 차지할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의 연대기를 보면 어떻게, 그들의 사십 년 동안의 광야의 방황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의 동쪽에 있는 요단강의 건너편의 영토(“트랜스요르단”이라고 부름, 요르단(Jordan)의 옛이름)에 마침내 다다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기록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요르단의 땅은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이었습니다. 그 영토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야곱의 형인 에서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스라엘 민족의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모세에게 이 여행을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친척들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하였습니다. 주: 바산(고대 팔레스티나의 갈릴리 호수 동북쪽 지역). 그 곳은 무서운 평판을 받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경 밖의 고대 문헌에 보면, 바산은 “뱀의 땅”이라고 알려 졌습니다. 그 곳의 두 개의 주요 도시 가운데,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는 이 여행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언급이 되는 곳이며, 죽음의 왕국의 지하 세계로 가는 관문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명기. 1:4](#); [여호수아. 13:12](#)) 이스라엘의 초자연적인 세계관의 문맥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옥의 대문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시혼과 옥이라는 두 왕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두 왕은 아모리 족속이며, ([신명기. 3:2-3](#); [31:4](#))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르바임의 통치자였습니다. [신명기 2:11](#)절에 불길하게 기록된 바, 아나킴은 “또한 르바임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초기에 겁 먹게 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게 했던 바로 동일한 족속의 거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끄셨으며 ([민수기. 13:32-33](#)), 겁먹고 하나님을 불신한 그 사건은 광야에서 사십 년을 방황하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 가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대치 상황은 사십 년의 방랑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 질 지에 대한 맛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하나님을 믿고 싸웠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승리는 그들이 자기들 앞에 놓인 것에 대해 자신감과 신뢰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초기에는 꿈무늬를 빼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모세가 말했듯이, “주 하나님께서 [시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를 물리치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물리쳤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바산의 왕인 옥과 그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 주셨고, 우리는 그를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 ([신명기. 2:33; 3:3](#)). 선지자 아모스는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자신의 성경책에서 그 대치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셨나니, 그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았다” ([아모스 2:9](#)).

그들의 두 번째 기회를 시작하는 것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공포를 맞닥뜨리게 하셨습니다—그 공포심은 그들로 하여금 사십 년간 광야에서 목표 없는 방랑을 해야 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흥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때 그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여야만 했습니다.

”과멸에의 헌신”

이스라엘은 그 날 시혼과 옥을 상대로 승리 했습니다. 그리고 왜 약속된 땅을 정복하는 데 때때로 전멸이 이루어 지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의문,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인 르바임의 고향인 그 도시의 전체의 인구는 “멸망하였습니다” ([신명기. 3:6](#)).

목표는 복수였습니다. 그 목표는 네피림의 혈통을 확실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거인 족속의 혈통은 악마의 것이었고, 반역에 의해 생산되었고, 추방된 천사이었습니다. 그들은 악마의 유산들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 가기 전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여호수아에게 넘겨 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약속된 땅을 정복하기 위한 수많은 군사 작전들을 이끌었으며, 그리고 그 작전들은 제가 이장의 초반에서 기술했던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진행 되었습니다: 적대적인 적국을 몰아 내었고, 그 과정에서 그 거인 족속의 혈통을 제거 하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성스러운 전쟁이었습니다— 암흑의 세력에 대항하는 전쟁,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정신적 실체인 적대적인 신들의 통치하에 있는 적군에 맞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정복에 대한 논리는 [여호수아 11:21-22](#) 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여호수아의 전략은 대부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수의 거인들이 달아 났습니다—그리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다가올 사건들에 대한 불길한 전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일부는 가드에 다다르게 됩니다. 주: 가드(필리시티아의 도시; 거인 골리앗의 출생지).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가 되며, ([여호수아. 13:3](#)) 다윗 왕 시절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사무엘상. 17:4](#)). 골리앗 또한 가드의 유일한 거인은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0:5-8](#)). 약속의 땅의 정복의 시기에 “파멸에 헌신한” 모든 이들이 사실상 파괴 되었으며, 그리고 그 정복이 그 주요 지침을 모두 완성하지 못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 오게 하였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그 정복은 어떤 면에서는 미완성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깨달은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잘 할 수 있으므로, 다른 나라들을 몰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복종은 불복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목표 바로 앞에서 멈추었던 결정에 대한 대가로 수세기 동안을 허비하여야만 했습니다. 사사기는 이 끔찍한 악순환에 대해서 되풀이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국가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압제를 당하여 왔으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믿는 것은 거의 소멸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해체 되어 내전에 휩싸였으며,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정복의 영광은 실패의 서사시에 의해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승리의 문턱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에덴을 복원하려던 그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으로부터 나온 초자연적인 세계관은, 악마의 신들의 영역인 믿지 않는 나라들과 함께,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하였고 흩어 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약속된 땅은 다른 신들과 그 백성들의 지배하에 들어 갔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세계관은 신약 성서에도 또한 스며 들었습니다. 바울은 어둠의 세력을 묘사하기 위해서, 공국, 권세, 왕좌, 그리고 권력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용어 하나 하나는 고대에 있어서 지리적인 통치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불복종과 불신앙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여하는지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덴 동산을 돌이켜 본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구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은 지구를 인간과 같이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구에 대한 그의 의회의 통치에 관해 인간을 배제 하신 것은, 그가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없었거나 또는 처음부터 그 계획은 좋지 않은 생각이었다는 것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시는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얘기했듯이, 그분께서는 실수를 하시지 않았습시다.

오래된 죄와 실패의 문제에 다가가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간은 에덴의 왕국의 통치를 되살린다고 해서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이루어 져야만 하는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신의 약속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따로 밀쳐 놓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약속을 모두 완성하시고 난 후에 모든 인간의 실패에 대한 형벌을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수도 없는 해결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적대심을 지닌 영리한 지능을 가진 초자연적인 존재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밀을 지켰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쉽게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 10장

뻔히 보이는 곳에 숨는 것

에덴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대한 그의 원래의 목표를 되살리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가족과 지상의 인간의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한 목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열매를 맺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하늘나라가 이세상을 만날 수 있는 곳, 인간이 천사를 만나 즐길 수 있는 곳, 그리고 천사가 이 세상과 인간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전개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실패의 역사

인간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실재(계신 곳)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에덴 동산은 폐쇄되었습니다. 천상의 적, 뻔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생명이 영원하지도 않고, 죽음이 지배하는 땅으로 추방—내던져 지거나 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죽음의 군주가 되었으며, 그 때문에 영원히 살 수도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장 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로마서. 6:23](#)).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목표를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반복했습니다: 열매를 맺고 번식하라. 그것은 다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법칙을 온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수 있는 탐을 세우는 대신에, 인간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들의 언어들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천국의 의회에게 그 나라들의 통치권을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새로운 인간의 가족과 함께 다시 시작하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에게로 돌아 가실 수 있었습니다—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회복된 이후에([창세기. 12:3](#)).

이 또한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도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 내어서, 시내 산으로 이끌어 간 다음, 최종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셨고, 그리고 난 다음 솔로몬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쫓아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하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간의 스토리는 실패한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실락원 이후의 인간은 상실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해진 상태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지도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할 것이고, 실패하고, 그리고 죽음의 군주이자 하나님의 최대의 적과 손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의 왕위를 보좌하는 수호자의 직책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비전에는 인간이 없이는 불가능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마지막 종착점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들을 위하여 다시 새롭게 만들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에 대한 저주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해결책—그리고 문제점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유혹을 견딜 수 있고, 항상 복종하고, 왕위에 적합하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자신의 힘으로 부활하여 죽음의 저주를 반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한가지의 방법으로만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 하심으로써 그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직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힘([요한일서 3:1-3](#))을 통해 예수님과 같은 천상의 존재가 되어야 에덴 동산은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그 계획이 누설된다면—하나님이셨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래의 비전을 다시 복원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곳에 와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계획—암흑의 세력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말한 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그 지혜를 알았다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7-8](#)LEB)

바울은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통치자라는 단어는 인간의 권력을 의미합니다—본디오 빌라도나 유대인의 지도자와 같은—그리고 바울은 또한 보이는 곳에 있는 천상의, 악마의 세력과 얘기하는 것입니다([에베소서. 2:2](#)). 하나님의 적은, 사람이든 천사이든,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수수께끼 같은 메시아

물론, 에덴의 복원이 달려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메시아—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한 메시아의 계획이 비밀이었다는 사실에 당신은 놀라셨나요? 우리는 그냥 구약 성서만 읽어 보고 그 모든 계획을 볼 수는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구약 성서에는 실제로는 신이시지만 나중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 돌아 가시게 되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진 구절이 없습니다. [이사야 53:11](#)절에서 “고난 받는 종”의 묘사에서 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53장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야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국가를 언급하는 것이지, 한 개인으로서의 구세주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이사야. 41:8; 44:1-2, 21; 45:4; 48:20; 49:3](#)). 그리고 메시아라는 단어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거의 다윗 왕을 언급할 때에만 쓰이거나 다윗 왕의 후손들 중 왕이 되어서 통치를 했던 사람을 일컬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 나신 메시아의 프로필은 구약성서에서는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신다고 할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생각해 봅시다. 그 발표는 제자들을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하였습니다([마태복음. 17:22-23; 마가복음 9:30-32](#)). 제자들이 “아, 맞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라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마태복음. 16:21-23](#)).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감지하거나,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저 구약 성서의 선지자가 했던 것과 똑같이 기적을 행하는 어떤 사람이고, 다윗 왕의 후손 중 한 사람이며 그 왕좌를 이어 받을 합법적인 상속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를 바로 보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시각으로 그들의 마음을 개방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신 후에, 그 제자들 앞에 나타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누가복음 24:44-45](#))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에덴 동산의 실패에 대한 저주를 역전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은 구약 성서에는 전혀 기록이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대신에, 그 단서들이 전체 구약 성서의 수십 군데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 곳에서 그 모든 비밀이 모두 분명히 밝혀진 곳은 전혀 없습니다. 메시아의 프로필은 뒤늦은 깨달음을 통해서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조차도 무엇을 바라고도 기대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능적인 초자연적 악마의 존재들도, 예언된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마태복음. 8:28-29; 누가복음 4:31-35](#)). 그만큼이나 그들은 구약 성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반전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들을 악마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말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제자들과 사탄이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원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마와 그 동조 세력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멍청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 그대로, 악마는 그들을 속여서 예수님을 죽게 하였습니다. 악마들은 그들 자신의 종말로 이끌고 갈 이벤트를 착수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잘못된 지시였습니다.

프로필의 일부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메시아의 프로필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다윗의 아들이 저주를 반전시키기 위해 죽으심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한 구약 성경 말씀은 없지만, 그 실타래는 구약 성서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그 계획이 어떻게 연출되었는지를 보아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타래를 찾을 수 있고 그 유형을 답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에서는 질문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라면 대답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그는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 졌습니다([출애굽기. 4:23](#); [호세아. 11:1](#)).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어 졌습니다 ([시편. 2:7](#)). 신약 성서에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셨습니다([로마서. 1:4](#); [고린도전서. 15:45](#); [고린도후서. 1:19](#); [히브리서. 4:4](#)).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요?”라고 물을 지도 모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창세기. 2:15](#))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어 졌습니다. ([이사야. 41:8](#); [44:1-2](#), [21](#); [45:4](#); [48:20](#); [49:3](#)). 다윗 왕과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 졌습니다. ([사무엘하. 3:18](#); [시편. 89:3](#); [열왕기상 3:7](#); [역대하. 32:16](#))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13](#); [4:30](#); [빌립보서. 2:1-8](#))

그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고통을 당하였나요? 그들의 현세에서의 존재는 어느 시점에서 끝이 났나요? 그들의 존재는 갱신되었나요? 그들은 에덴동산에 미래가 있었나요? 그 대답은 모두 예스입니다. 아담,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 왕은 모두다 하나님의 임재(계신 곳)로부터 추방당하였습니다—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던 장소로부터(에덴동산과 약속의 땅) 추방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되어 온 것처럼 미래에도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실수를 만회할 것입니다.

이것의 요점은 이 모든 인물들이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형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조각들이 발견되어 적절한 자리에 잘 놓여진 후, 눈에 보이게 된 통합된 그림입니다. 모든 것이 앞이 가리는 것이 없이 잘 보이는 상태였지만, 아직도 꺾어보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지능적인 악—사탄, 악마, 그 나라들을 지배하던 작은 신들은 모든 일들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투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들이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의 존재는 오직 한 분—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편에 계십니다.

에덴의 실패 때문에, 사탄은 우리 모두에 관한 적법한 관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모두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12](#)) 그 뱀은 저주를 받았고, 죽음의 왕국을 지배하도록 내던져 졌습니다—그 지하 세계, 혹은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그 곳으로. 에덴의 실패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으며 죽음의 왕국으로 가야 합니다—악마가 지배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최초로 오셨을 때 모든 것이 변화 되었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낼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자 왕국의 멤버로 창조된 모든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저주와 죽음의 신으로부터 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그 왕국의 부활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누가복음 10:1-9](#)).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복음 Luke 10:18](#)).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죽음과 부활이,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 영혼에 대해 아무런 권리 주장을 못하게 하면서, 죄인들의 빛을 갚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왕국은 죽음의 왕의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들은, 교회처럼 집합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컬어 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에 우리도 승천할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5:20-23](#)). 그는 죽음의 장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입니다([히브리서. 12:22-24](#)). 요한이 말했듯이, “영접하는 자—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2LEB](#)).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왕국에서 살아 있는 사람들을 찾아 볼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손을 아무에게나—그들이 사람이든 천사이든, 충성을 하든 적대적이든 간에—나타내시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느냐 하는 세부 사항은 비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나타 나실 때, 그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며, 그리고 에덴의 왕국의 복원이 최종 단계라는 것을 그들이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어지는 두 개의 장에서, 그것은 어둠의 세력으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의 파괴를 행동으로 실행하게 하는 미끼를 놓는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한 정보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11 장

초자연적인 의도

지난 장에서, 우리는 구약 성서가 어떻게 잘 보이지 않게 숨기면서 메시아를 제시하였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에덴을 복원하고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 가시고, 그리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인간이 되는 길만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간의 왕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옆길로 빗나가지 않으면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 왕이 그의 백성들이 있는 장소에서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죄악을 심판하실 수가 없고,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만이, 애초에 계획된 것과 같이, 다시 복원된 에덴의 왕국을 다스리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 의회에 들어갈 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구 조건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초자연적인 암흑의 세력들이 인간들을—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태인—조작해서 자신을 죽이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했듯이([고린도전서. 2:6-8](#)), 만약 그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지 알았다면 그들은 결단코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때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서의 독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로 향하는 사실이 다소 무작위의 일이라는 인상을 갖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결국, 복음은 같은 에피소드를 항상 제시하지는 않습니다—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 속에서 오직 두 군데에서만 발견이 되고(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 중 한 명만이 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2](#)). 때로는 그 장면들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기록된 십자가에 못박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행동들은—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죄인을 사하시고, 위선과 맞서는—종종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면서 여행하시던 그 현명한 분의 행동보다는 더 무작위적인 일입니다.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악을 능가하다

예수님의 대중들에 대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은 그의 세례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그의 아들로 확인하시는 장소였으며([마가복음 1:11](#)),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분으로 그를 밝힌 곳 이었습니다([요한복음 1:29](#)).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요한 복음에서 읽을 때, 우리는 즉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 솔직히 말해, 아무도 그렇지 않았습니.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에 가까울 때에—세례를 받으시고 삼 년이 지났을 무렵—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마태복음. 17:22-23](#); [마가복음 9:30-32](#)).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듣게 되는 것은, 그들의 주님께서 곧 돌아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처음부터 계획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장에서도 논의했듯이, 그 계획은 구약 성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마태복음. 4:1](#); [마가복음 1:12](#); [누가복음 4:1-13](#)). 그때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구 위에 하나님의 “자치”를 다시 실현하려는 임무를 받고 오신 메시아 이셨습니다. 결국, “기름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받은 왕 중 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은 ([요한복음 12:31](#)), 예수님께서 사탄의 영역—이스라엘을 창조하시기 전, 바벨탑에서 저버리신 나라들—에 목표를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신명기. 4:19-20](#); [32:8-9](#)).

대부분의 우리는 예수님과 사탄의 장면을 기억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세 번 유혹하였습니다([마태복음. 4:3-11](#)).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한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은, 천하 만국 (사탄이 추정하기를 예수님께서 되찾으려고 하는 바로 그 천하 만국)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제시하여([마태복음. 4:8-9](#)),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훼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태복음. 4:8-9](#))

사탄의 제안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영리한 변경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던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의 상속권을 박탈한 나라들을 되찾아 오는 것.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중에 강요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제안은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죽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사탄에게 귀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거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그의 소유였던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미션은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복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족 구성원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 지며, 이것의 의미는 죄는 반드시 속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는 그의 자녀들이 관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마귀는 때가 되면, 속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취향

광야에서의 시험이 있던 직후에,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고(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마가복음 1:16-28](#); [누가복음 4:31-5:11](#)). 제자들을 소집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이 계속되면서 귀감의 시작을 형성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더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질병과 장애와 질환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누가복음 9:1-5](#)).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에 열 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숫자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12 지파와 일치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왕국의 계획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되었고, 모든 다른 나라들 위에 선택을 받았습니다([신명기. 32:8-9](#)). 후에 바울은 복음전파에 대해 똑 같은 방식의 견해를 가졌습니다—유대인과 같이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비 유대인과 같이 갔습니다([로마서. 1:16-17](#)).

예수님께서서는 열 두 제자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께서 칠 십 명을 더 임명하시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 쫓으라고 하셨습니다([누가복음 10:1, 9, 17](#)). 그 숫자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국가들의 숫자입니다—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때에 저버리시고, 작은 신들의 지배하에 두셨던 그 나라들의 숫자인 것입니다([신명기. 4:19-20](#); [32:8-9](#)). 어떤 번역본에는 70이라기 보다는 72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일부 고대 구약 성경 사본에는 [창세기 10](#)장의 나라들의 이름들을, 그런 방법으로 72까지 더하여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요점은 같습니다—파견하신 사람들의 수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나라들의 숫자와 일치합니다. 열 두 제자를 부르신 것은 마치 이스라엘에게 오기로 예정된 왕국에 대한 징표인 것과 마찬가지로, 칠십 명의 사람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그 나라들을 다시 찾아 오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칠십 인이 돌아 왔을 때([누가복음 10:17](#))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복음 10:18](#)). 그 메시지는 극적인 것입니다: 위대한 반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예수님께 귀속하고 나면 사탄은 더 이상 인간에게 그 어떤 요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형제들을 기소하는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2:10](#)^{GNT}). 그는 사건 없는 검사였습니다.

나를 데려가라

다가 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설교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는 것과, 그리고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삼 년간 입증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마지막을 준비하셨습니다—그의 진짜 목적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으로 제자들을 데려 가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야기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초자연적인 세력에 대해 결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라 불리우는 장소에 제자들을 데려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의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성서 시절에는 그 지역은 바산이라고 불려 졌습니다. 우리는 9장에서 그곳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산은 죽음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여겨 졌습니다—지옥의 문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르몬 산의 자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이 땅에 반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땅으로 온 곳으로 [창세기 6:1-4](#)절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하면, 구약 성서 시절에 바산과 헤르몬은 악마의 우주적인 세력들의 시작지점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잘 알려진 질문을 하신 곳입니다.“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15](#))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6](#)절).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더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17-18](#)절)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반석”이라는 단어에 대한 식별은 수세기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용어를 이해 하는데 핵심이 되는 것은 그 지역의 지형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바산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구약 성서 시절에, 이 지역은 죽음의 왕국으로 가는 관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 졌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암석”은 산을 의미합니다. “지옥의 문” 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서있던 바로 그 자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암흑의 세력을 상대하고 계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실패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잃었고, 그 대신에 죽음의 운명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제왕—뱀, 사탄이나 악마라고 알려진—은 인간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예수님을 그 곳으로 보내시는 비밀 전략은, 지옥의 문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죽음의 제왕과 그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공격을 견뎌 내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마태복음 16](#) 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악마의 정문으로 가셔서, 악마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의 도발을 유발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비밀 전략을 실제 행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셔야 할 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말로 하는 도전장이 부족한 듯이, 예수님께서서는 한걸음 더 나아 가셨습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모두는 예수님의 사역의 다음 이벤트는 변형이라는 것에 동의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2-8](#) 절을 읽어 보면: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때 세 제자들 앞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종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 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던라. (GNT). 주: GNT(Good News Translation).

그 변형은 헤르몬 산에서 일어 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정확하게 그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주시기 위해 바로 이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에게 통지를 하셨습니다: 나는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기 위해 여기에 왔노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실상, “내가 여기 왔노라—지금 당장 이 사실에 대해 무언가를 하여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변형을 하신 직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것이고, 자신이 거기에 죽으리 가신다는 말씀을 시작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과 나머지 악의 권세들에게 행동으로 옮기게 할 미끼를 던졌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의 열쇠였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예수님의 사역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는 언젠가 글로벌 에덴으로 안내해 나갈 그 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 오실 그날이 올 때까지, 지구상의 하나님의 왕국의 회복을 진취적으로 진행하실 그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것처럼 중심축이 되는 역할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 모두는, 제자들처럼, 완수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의회로 부르심을 받고 올라 온 믿는 자들은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참석하는 것입니다([골로새서. 1:13](#)).

예수님의 의중 가운데는, 에덴은 무엇과 같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질병이나 육체적인 불완전함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적대시하는 세력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왕국은 에덴 동산보다도 더 크며, 이스라엘보다 더 넓습니다. 그 왕국은 전세계적인 것입니다. 그 왕국은 모든 나라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그 옛날 에덴 동산이 지녔던 모든 것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지구상의 천국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예수님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동료들의 육신과 영혼을 같이 보살피면서, 그들을 왕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 되려고 하는 다짐을 강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하신 일을 모범으로 삼으면서, “상심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초자연적인 힘을 필연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이사야 [Isa. 61:1](#)),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근거에서는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암흑에 대한 저항과 전략적인 비전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향한 영혼에 의해 행해진 은혜로운 행위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복음의 전파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의 메시지와도 일치합니다. 다른 것을 감소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모방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그리고 왕국의 비전에 대한 업무 분석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능적인 마귀가 능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왕국의 예지력과 행동에도 취약하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벌써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전서. 3:22](#)).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공동지배자입니다 ([골로새서. 3:1](#); [디모데후서. 2:12](#); [요한계시록. 2:26](#); [3:21](#)). 지구상의 하나님의 왕국으로의 진전과 완성 앞에 지옥의 문은 견뎌 내지 못 할 것입니다. 위대한 반전에 참여하는 결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제 12 장

구름을 타는 사람

저는 앞장에서 지옥의 문과 헤르몬 산에서 암흑의 세력들에게 미끼를 놓으신 직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해 주목하면서 앞장을 마무리 했습니다. 주님을 시험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한 일련의 사건들이 활성화 된 도전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주 간과하는 초자연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무엇이 최종적으로 유대인의 당국에 의해 사형 선고를 이끌어 내었는지,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 사형 실행을 하게 하였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구약 성서의 다니엘 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하나님이 천사들과, 천상의 의회 와 함께 주재하신 회의.

옛날부터 계신 분과 그의 의회

[다니엘 7](#)장은 이상한 환영으로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바다로부터 네 짐승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 7:1-8](#)). 그것들은 모두 괴물같이 생겼으며,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짐승이 가장 기겁을 하게 생겼습니다. 구약 성서에 그 꿈들은 해석이 되어 있으며, 사물이나 생물이나 언제나 무엇인가를 대표하며, 그리고 이 꿈에서는, 다니엘의 꿈 속의 네 짐승들의 환영은 네 개의 제국을 나타냅니다. 그의 환영이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왕의 꿈의 주제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바빌론과 그를 따르는 세 제국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니엘이 그 다음에 묘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 7:9-10](#))

우리는 옛날부터 계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 (성서) 옛날부터 계신 분(←다니엘(Dan.) 7:9); 지고(至高)한 존재, 하나님. 그것은 매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왕관에 대한 에스겔의 환영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아 차릴 수 있습니다([에스겔. 1](#)). 불과 바퀴,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왕좌에 앉으신 환영은 다니엘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왕좌가 단지 한 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눈치 채셨나요? 다니엘의 환영에는 여러 개의 왕좌가 있었습니다([다니엘. 7:9](#))—그것은 천상의 법정과 하나님의 의회를 위한 충분한 수의 왕좌입니다([다니엘. 7:10](#)).

천상의 법정은 그 짐승들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 되었습니다—그 네 제국들—환영 속의 장면에서. 네 번째 짐승은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다니엘. 7:11-12](#)). 그들은 다른 왕과 왕국들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이 사건들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 장면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 사람의 아들

다니엘은 그의 환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 줍니다:

내가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사람의 아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13-14](#))

“사람의 아들”이란 구절은 구약 성서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주: 사람의 아들: 최후의 심판(Last Judgment)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그 말이 사람을 언급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은 이 성경 구절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다르게(특별하게) 묘사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13](#) 절에는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대한 사건일까요? 왜냐하면, 구약 성서의 다른 편에서는 그 구름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9:1](#); [신명기. 33:26](#); [시편. 68:32-33](#); [시편. 104:1-4](#)). 그러나, [다니엘 7](#)장에서는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서 이미 그 현장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의 환영 속에서는, 다니엘은 그 또한 사람이기도 한 “두 번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평범한 한 사람 이상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확한 요점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가야바의 앞에 섰을 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생각을 말씀하면서 그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였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그때 대제사장이 그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들의 판단은 어떠하냐?” 그들은 대답하기를, “그는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59-66](#)).

그 질문에 분명히 답변하기에는 다소 무의미한 답변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다니엘 7:13](#)절을 인용하여 가야바의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가야바야, 진정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냐? 잘 들어라.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이 그 예를 말씀하실 때, 그가 바로 [다니엘7:13](#)절에 나오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구약 성서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이는 방법으로 묘사된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인간의 형태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그리고 사형 선고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 품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마귀의 통치를 받던 공국과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저버리셨던 나라들을 지배하는 권세들로부터 그 나라를 되찾아 오려면, 반드시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실행하셨습니다. 다윗의 말을 통한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이 어떠한 견지에 대한 묘사로 잘 알려진 [시편 22](#)장에 보면, 십자가의 보이지 않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에 대한 개요를 알려 줍니다. 그 고통의 신음에 대해 시편의 작가, 다윗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쭈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께 의탁하니 너를 구원하실 걸?

그가 너를 기뻐하신다면,

그가 너를 건지실 거야” ...

많은 적들이 황소같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바산의 잔인한 황소 같은,

그들이 나를 에워싸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의 힘은,

땅에 쏟아진 물같이 가버렸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시편. 22:7-14](#)GNT)

이 묘사에서 가장 오싹한 부분은 바산에서 온 잔인한 황소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구약 성서 시대에는, 바산은 악마의 신들과 죽음의 왕국의 시작 지점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황소와 암소들로 상징화 된 바알신을 섬기는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바산 땅에서 온 황소”는 악마와 어둠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시대에 있어서, 그 형상은 C. S. 루이스의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주: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은 C.S. 루이스의 7편으로 된 판타지 소설 시리즈인 '나니아 연대기'에서 첫 번째 책.)을 보면 그 으스스한 혐오감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읽은 사람이나 또는 그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둘 계단 위에서 흰 마녀의 기뻐하는 무리들에게 아슬란이 겸허하게 그의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사탄보다 한 수 앞서는 것처럼, 아슬란도 흰 마녀를 바보 취급하였습니다. 악마가 승리의 순간으로 오해한 그 사건은 악마 자신의 만회할 수 없는 패배로 판명 났습니다.

당신들은 신이지만,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다

아담의 자손들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던 사탄의 패배는, 십자가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반란에서 그를 지지한 자들은, 그 나라들의 초자연적인 신들(엘로힘), 그들의 영역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신들은 가장 높으신 분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들에 대해 임명을 받았습다([신명기. 4:19-20; 32:8-9](#)). 우리는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적이 되는지에 대해 들은 바가 없지만, 그들은 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는 대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고 그를 경배하는 일을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신명기. 17:1-3; 29:26-27; 32:17](#)). [시편 82](#)편은, 우리가 이 책의 2 장에서 천상의 의회를 소개하기 위해 보았던 성경이며, 그들 엘로힘(작은 신들)은 그들의 힘을 남용하고 나쁜 짓을 장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정의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의회를 주재하십니다;

신들의 집회 중에 재판하십니다:

“불공평한 판단을 중지하여야 한다;

더 이상 악인의 편에 서지 말지어다!

가난한 자와 고아들의 권리를 보호할 지어다;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너희는 얼마나 무지하나! 얼마나 어리석은지!

너희들은 완전히 부패 되었구나,

그리고 세상에서 정의는 사라지고 없구나.”

([시편. 82:1-5GNT](#))

그 나머지의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 신들에게 그들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 천상의 의회 회의를 소집하셨다고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되찾으려고 결심 하실 때에는 그들의 공포 정치는 끝이 날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다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왕족의 한 명처럼 너희 생명은 끝이 날 것이다.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사 세상을 다스리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Ps. 82:6-8GNT](#))

언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되찾으시려고 결심 하실까요? 우리는 일찍이 그 대답을 [다니엘 7:14](#) (GNT) 절에서 읽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13-14](#)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사람의 아들(인자 같은 이)이 그 왕국을 받으시는 날, 그 때가 초자연적인 암흑의 세력들의 종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날에 그 왕국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거기 높은 곳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20-21GNT](#)).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십자가 이전에는, 사탄이 우리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청구권을 가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 합니다—그리하여, 사탄의 영역인 죽음의 왕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야 했을 것입니다—만약에 예수님의 희생과 그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업적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본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왕국이 지구상에 시작될 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축출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누가복음 10:18](#)). 신은 더 이상은 믿는 자들에게 대한 기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영혼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가 사는 것처럼 살아 가고 있나요?

구원은 도덕상의 완벽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선물입니다([에베소서. 2:8-9](#)).

다시 말하자면, 구원은 도덕상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잃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에 의해서 다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시시한 성과를 수행했다고 해서 잃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충성심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사탄의 청구권을 이기시기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믿는 것과, 다른 모든 신들과, 그들이 그 신들의 종교적인 체제 안의 한 부분이었던 곳으로부터 돌아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나라들에게 전하도록 임명 받은 하나님의 왕국의 메시지입니다([마태복음. 28:19-20](#)).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 적군의 신들의 영역, 공국과 권세들은 줄어 들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옥의 대문은, 죽음의 왕국은, 부활을 이겨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진을 견뎌 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에는, 제자들에게는 이 사실 중의 어느 것도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 그러나 그들은 곧 극적이고, 잊지 못할 방법으로 이 메시지를 이해 할 수 있게 됩니다.

제 13 장

위대한 반전

복음서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는—그의 출생, 죽음, 그리고 산상수훈 등에 관한 설명과 같은 이야기—아마도, 신약의 가장 친숙한 성경 구절은, 성령 강림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파도처럼 밀려 오던 장소에 관한 [사도행전 2](#) 장일 것입니다. 교회가 막 시작하는 개시를 표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 성경구절이 친숙한 만큼, 거기에는 우리가 대부분 깨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은 바벨탑 이후 구약 성서의 우주적인 지형을 반전하려는 캠페인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제작되었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작은 신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던 일은, 바벨탑에서 하나님에 의해 상속권을 박탈당한 모든 나라들에 대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침투하기 위한 전쟁 계획이었으며 —고대의 영적인 전쟁의 전략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일에 대한 묘사는 정말이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밀려 와서,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날 때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다 경악하고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 ([사도행전 2:1-8LEB](#))

주목할 만한 구약성서의 구절 속의 초자연적인 세계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중 어떤 일들은 영어 번역으로는 뜻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도착을 알리는 “세차게 부는 바람”은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묘사하는 친숙한 표현입니다([열왕기하 2:1, 11](#); [욥기 38:1, 40:6](#)). 불은 또한 하나님을 묘사하는 친숙한 표현입니다([에스겔. 1:4](#); [이사야. 6:4, 6](#); [다니엘. 7:9](#); [출애굽기. 3:2; 19:18; 20:18](#)).

그 성경의 참고 문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 거기 계셨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도 그 뒤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 나라들에 대해 임명하신 작은 신들로부터 그 나라들을 다시 되찾아 오는 작전을 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4:19-20; 32:8-9](#)). 그러나 그 나라들은 하나님의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시편. 82](#)).

그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은 제자들의 말씀이었습니다—그러므로 혀의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유대인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모인 다른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하셨고—그 다른 유대인들은 적군의 신들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도를 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과 바벨

바벨탑 사건은 그 나라들을 흩어지게 하고, 그들을 다른 신들의 통치하에 두게 하려는 하나님의 결심이 생기게 하였습니다([신명기 4:19-20](#); [32:8-9](#)). 언뜻 보기에는, 그 이벤트와 [사도행전 2](#)장의 일들 간에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그 두 가지 사이에 분명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두 개의 핵심 항목이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 불의 혀는 “갈라진” 것으로 묘사 되었으며, 그리고 둘째는, 그 군중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혼동스러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그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어로 기록을 하였고, 그리고 그가 이 대목에서 사용했던 그리스어는 [창세기 11:7](#)절과 [신명기 32:8](#)절에 “갈라 졌다” 그리고 “혼란”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둘 다 바벨탑에서의 언어와 민족의 갈라짐과 결과적으로 야기된 혼란을 묘사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비 유대인 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어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그리스어로 번역한 구약 성서는 그 당시(그리고 오늘날까지도) 70인역 성서로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 Septuagint, 셉투어진트(70인역(譯)(성서)) ((그리스어역 구약 성서; 이집트왕 Ptolemy Philadelphus, 톨레미 필라델푸스(기원전 3세기)의 명에 의하여 알렉산드리아에서 70[72]명의 유대인이 70[72]일만에 번역해 냈다고 전해짐). 소수의 사람만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것은 초기 교회의 구약 성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집필할 때 누가는 바벨탑 사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관성을 결부 시키는 걸까요? 오순절(성령 강림일)에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으로 오신 그 성령은 회오리 바람과 불의 형태로 무척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에서 오는 혼란(바벨탑의 결과로 생긴)은 불길의 혀가 제자들로 하여금 그 오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유대인들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삼 천명이나 되었습니다([사도행전 2:41](#)).

그 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 들이고 새롭게 신자가 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들의 고국으로 전할 것입니다—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그들의 나라들. [창세기 11](#)장으로 돌아 가면, 하나님은 인간의 나라들에게 등을 돌리셨고, 그 직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과 나라를 설립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가 거절했던 그 모든 나라들로부터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믿는 가족의 품 안에 다시

데려 오시려 하고 있습니다. 때가 도래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적군의 신들의 왕국을 온통 뒤덮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중에 믿기 힘든 부분은, [사도행전 2장](#)의 나라들의 리스트와 그들이 나열된 순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나라들을 지도에서 살펴 본다면, 구약 성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과 페르시아로부터 추방당한 동쪽에서부터 먼저 이동하여, 서쪽으로는 그 당시에 가장 먼 지점이라고 알려진 곳까지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것과 똑 같은 거리와 범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작은 신들에게 지배 당하고 있던 나라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도 행전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유대인 제자이었습니다—그는 이스라엘 밖의 나라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에 의해 처음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여행과 삶의 환경은, 예를 들면 로마인들에 의해 체포된 것과 같은, 그를 멀리 서쪽 끝까지 보냈습니다.

그의 신약 성서의 편지에서, 바울은 그의 사역과 복음의 전파에 반대하는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 종종 언급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가 그 영역을 침범한 사악한 실체들에 대한 바울의 용어들은, 바울이 구약 성서의 우주적인 지형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께서는 바울의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력에 대한 전문용어(ESV에서 인용됨) 속의 공통된 맥락을 알아차리셨나요? 주: The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 통치자들 / 공국 ([에베소서. 1:20-21](#); [6:12](#); [골로새서. 2:15](#))
- 권세 ([에베소서. 1:20-21](#); [3:10](#); [6:12](#); [골로새서. 2:15](#); [고린도전서. 2:6](#))
- 능력 ([에베소서. 1:20-21](#); [3:10](#))
- 통치권([골로새서. 1:16](#))
- 주([에베소서. 1:20-21](#); [고린도전서. 8:5](#))
- 왕권([골로새서. 1:16](#))

이 모든 단어들은 지정학적인 통치자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과 같은 용어들은, 신약 성서와 고대 그리스의 문학 속에서도, 인간의 정권 세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의 용어는 영역의 지휘권을 뜻합니다. 그것은 구약 성서가 영적인 세계와 인간의 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저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영적인 존재의 통치하에 있는 나라들.

”나는 스페인에 갈 것이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여행길에서 끝을 맺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었고, 그리고 그는 두 가지 이유로 로마에 갑니다: 시저에게 청원을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적대적인 신들의 통치하에 있는 나라들을 되찾으려면, 그 당시의 세상의 땅끝이라고 알려진 곳까지도 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서 시절에는, 땅끝은 타르시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그것은 스페인으로 불려 졌습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스페인에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감금되기 전에 로마서에서 한 말을 보면 그는 전적으로 스페인에 가려는 의도였습니다— 바울의 시대의 서쪽 땅끝이라고 알려진 곳 — 예수님을 위해 그 모든 나라들을 되찾기 위해서:

나는 내가 스페인을 향해 가는 길에 너희들을 보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귄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의 도움을 받아 그리로 보내 주기를 원하노라....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리라([로마서. 15:24, 28](#)).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복원하려는 계획이 바울의 생전에 시작 되었다는 사실에 바울은 동기가 부여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 와야”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 했습니다([로마서. 11:25-26](#)). 그는 오순절에 시작된 역사를 그가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라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바울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들이 살고 있던 악마의 근거지로 침투해 들어 간 그 모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신자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임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라고 한다면, 왜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고 효과적이었던 것일까요? 한가지 분명한 차이점은, 바울은 그의 인생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지배하던 그 권세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그리고 그의 뒤에 그리고 그의 안에 있던 힘은 보다 더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일들을 믿으시나요? 성경은 그것들을 주어진 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그 자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그들을 대했던 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실제로 얼마나 큰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북아메리카, 남 아메리카, 중국, 인도, 노르웨이, 호주, 아이슬란드, 그리고 많은 다른 장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는 임무는, 궁극적으로 바울이 이해 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도

복음이 이 세상 어느 곳까지라도 다다르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울의 목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 곳 지구상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러 오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벨의 사람들보다는 예수님, 열 두 제자, 그리고 바울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성경 구절의 또 다른 암시는 악마의 근거지에 대한 개념이 성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악마의 지역들 또는 근거지의 경계, 혹은 악마들의 정신적인 서열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이 지구를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저항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 되어서 이 땅 어디에서나 그의 좋은 통치를 펴뜨리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는 경험적 증거로 설명이 불가능한 저항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임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주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대리인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16](#); [6:19](#); [히브리서. 1:13](#); [요한일서 4:4](#)).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 봐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과 바울이 가졌던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매일 아침에 일어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매일의 우리의 인생이 형제들을 어둠에서 구해내야 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신분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그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무작위나 무 목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대신에, 우리가 우리 주변을 모두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지능적인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을 줄 수도 있는 우리의 결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직업들, 우리의 소득,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문제들까지도 별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또한 미시적인 세상도 볼 수가 없습니다—그러나 우리는 서로간에 때려고 해도 뺄 수 없는 불가분한 부분입니다.

초기 신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볼 것이지만, 그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어둠의 세력에 노예화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항복하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문자 그대로 적군의 세계 그리고 그의 권세들 에게 대항하는 것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용하게 소위 하나님과 그의 보이지 않는 대리인들이 그들과 함께 하는 기독교라는 세계적인 업적을 산출해 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전쟁은 사실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제 14 장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사람

예수님의 잘 알려진 기도 중, 겐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재판에 회부되기 위해 체포되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7:16](#)). 믿는 자들은 분명히 이 세상에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복음을 모든 나라에 전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았습니다([마태복음 28:19-20](#)).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역설은—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닌—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몇 가지의 인상 깊은 방법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성스러운 공간, 거룩한 땅,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8장](#)에서 성스러운 공간의 개념에 대해 말해 보았습니다.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임하신 곳은 다른 모든 장소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존재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어느 곳에서나 항상. 오히려,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선택하신 영역을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나 성전을 가지기 위한 목적중의 하나였습니다.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개념은 많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종교 의식 절차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지형—작은 신들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간에 어떻게 세상이 나누어 졌는지에 대한 지형—이라는 관념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개념은 신약 성서에 극적인 방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어 봐야 할 모든 것은,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 계신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분께서는 특별히 각각의 믿는 사람들 안에 머무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거나 말거나, 당신이 바로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19](#)).

믿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도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전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16](#)). 그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들..... 주 안의 거룩한 성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19, 21-22](#)).

그 영향은 깜짝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친숙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20](#)^{LEB}). 구약 성서의 성스러운 공간에 대한 문맥을 살펴 보면, 그 말씀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성도들이 점유하고 있는 영적인 땅은 암흑의 세력 가운데에서도 신성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여호와와 마지막 선택하신 거주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이므로 이스라엘은 성스러운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스러운 땅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과 그들의 적대시하는 신들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늘 날의 믿는 자들은 영적인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는 특별한 장소, 그분의 존재가 거주하는 곳—그러나 우리는 어둠의 세력의 노예가 되어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사탄에게로 내보내다

이러한 개념은 지역 교회의 성스러운 곳에 그려진 바울의 모습에서도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몸은 성스러운 장소이며, 회개하지 않는 죄를 위한 장소는 아닙니다.

8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캠프가—그들의 성스러운 장소— 캠프의 성스러움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죄를 다루고 있었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는 속죄의 날에 대해서 토론해 보았습니다.(레위기. 16) 나라의 죄를”아자젤을 위한” 한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제사 의식을 하는 장소도 얘기 하였습니다 (레위기. 16:8, 10). 아자젤은 광야에 거주하는 악마의 실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를 함께 실어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 보내었습니다. 그 행위는 상징적으로 사람들에게 속한 죄를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광야로, 영혼의 암흑이 있는 장소로.

바울은 같은 방식으로 죄를 다루는 고린도 인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죄를 그 속한 곳으로 보내는 방식. [고린도전서 5](#)장에, 바울은 성적으로 문란하여서 회개를 해야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는 “이 자를 사탄에게 건네 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고린도전서. 5:5](#)GNT). 이유는 명확했습니다—죄는 성스러운 땅 위에 설 땅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부터 내쫓아야 합니다([고린도전서. 5:9-13](#)). 교회로부터 추방 당하는 것은 사탄의 왕국을 믿는 것이며,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이런 결과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파괴, 그리하여 그의 영혼은 아마도 예수 재림의 날에 구원 받을 수 있는 결과” ([고린도전서. 5:5](#)). (여기에서 참고할 문헌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육체적인 육정의 올가미에 빠지게 한 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24](#); [고린도전서. 11:32-33](#)]).

영적인 전쟁으로서의 세례

이 주제에 대한 베드로의 입장은 바울의 것과 같았습니다—믿는 자들은 암흑의 세력에 대항해야 합니다. 전투에 대한 그의 생각은 신약 성서인 [베드로전서 3:14-22](#)절의 이상한 문구 속에서 발견 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할 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겨우 여덟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것과 같은 뜻으로 세례는 당신을 지금 구해 줍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합니다. (LEB)

저는 여러분께서 그 성경 구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 그리고 옥에 갇힌 영혼들은 세례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세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그 구절에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또한 아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반대편에 있는 아담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바울이 이같이 말한 이유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아담의 불복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예수님]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19](#)).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쓸 때, 그는 아담보다는 에녹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에녹과 예수님은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요점을 만들고자 할 때, 그 비유로서 에녹을 등장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무슨 요점?”. 어쨌든, 구약 성서에서 에녹에 관한 구절은 조금밖에 없습니다([창세기. 5:18-24](#)).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그가 대홍수 이전에 살았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24NIV](#))라는 것뿐입니다. 이 구절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하려고 했던 것과 그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왜 에녹이 그에게 어떤 것을 상기시켰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구약 성서 외에 에녹에 관한 유대인의 책을 읽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하게도, 베드로는 에녹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대 유대인의 책에 관해 친숙하였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예상했던 대로 에녹 전서 이었습니다. 그 책은 노아의 홍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많은 자세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6:1-4](#)절의, 신의 아들들(에녹은 그들을 관찰자라고 불렀습니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자식(네페림 거인족)을 낳았다는 일화에 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두 사람 모두가 노아의 시절에 죄를 지은 천사들에 대해 쓸 때([베드로후서. 2:4-5](#); [유다서 6](#)), 그들은 성경 속의 홍수 이야기가 아닌 에녹 전서의 아이디어들을 언급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의 대홍수 설명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종말의 날까지 지하 세계의 죽음의 왕국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 전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에녹전서 6:1-4](#); [7:1-6](#); [10:4](#), [11-13](#)).

에녹 전서에 기록된 “감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에녹 전서의 이야기에는, 에녹은 꿈에 감옥에 갇힌 영혼들이 나타나 에녹에게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선처를 호소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결국에는, 에녹은 하나님 앞에 나아 갔습니다—하나님께 노여움을 푸시고 그들을 풀어줄 것을 간청하는 데 있어, 에녹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에녹은 그렇게 하였지만, 나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에녹은 그 대답을 전해 주어야만 했습니다—그는 감옥에 있는 영혼에게로 내려 갔습니다. 그는 그 영혼들이 아직은 심판 중에 있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 관한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일에 관해서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요점은, 예수께서 죽은 자의 왕국에 내려 가셔서 거기에 있는 실패한 천상의 존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장소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아마도 그들의 동료인 마귀가 이겨서, 곧 그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 오래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예수님은 곧,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승리하지 못하였습니다—그들은 아직도 심판 중에 있으며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이 이상한 구절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끝이 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그리고 앉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전서. 3:22](#)).

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세례와 연관을 지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마귀의 권세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으로 완성되는—은 세례의식 안에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죽음, 매장,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로마서. 6:1-11](#)).

베드로에게는, 세례는 이 모든 것에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21](#)). 그리스어의 “간구”는 한 사람이 선택하는 “맹세”를 의미합니다. 그리스어의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서의 사례가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의 차이점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 그리고 부활과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 그리스어의 단어는 또한 헌신을 의미합니다—좋은 것, 어리석은 것이 아닌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세례는 충성 서약이자, 영적인 전쟁에서 그 쪽 편에 선 마귀의 세력(거기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고대 기독교인들이 현대의 우리들보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세례 의식에서는 이 구절 때문에 사탄과 그의 천사들에 대한 포기 선언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첫째, 믿는 자들이 거룩한 성지라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가 머무시는 장소—구약 성서의 영광—라는 것을 이해한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를 위해서 항상 상존하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목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접촉하기를 꺼리게 하고 싫어하게 할 만한, 그런 고의적인 이상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출애굽기 19:6).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셨던 삶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대적인 신들의 노예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끌어 당겨서, 진정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세계관이 모든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조율을 맞출 때,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만들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걱정거리에서 벗어나서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언어, 행동, 윤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 냉소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가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출세하거나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의 반대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과 다르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성서 시대에는, 교회나 예배당을 방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과 탁월함—그리고 그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관념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하며 갑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 가족을 필요로 하신 것인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에서 그 나라들을 저버리시고 다른 신들에게 넘기신 후에, 새로운 가족을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냥 우리에게서 멀리 가버리시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고이 간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또 다른 성격의 특성에 처했을 때의 아이러니를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 한다면,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싸구려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예를 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암시는, 이 장에서 우리가 토의해 왔던 것과 같이,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의 행동만으로도 우리가 어느 편에서 있는 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레나 죄악에 대한 저항 같은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우리의 결정에 따라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불충하게 행동하는 것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도입된 것 중에서 무엇이 약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거나 말거나, 우리는 감시 당하고 있습니다—영적 전쟁의 양쪽으로부터.

이러한 진실들은 실행하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비록 실수가 만회되었지만, 우리는 실패하였습니다. 그 사실들과 같이 살려면, 우리는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왜 우리 자신의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동조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세상의 것이 아닙니다—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요한복음 8:23](#); [요한일서 4:4](#)). 그 차이, 그리고 우리의 신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더욱 예리해 질 것입니다.

제 15 장

신성의 참여자

당신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앞장에서 이 질문을 하였습시다만, 다시 이 것을 떠올려야 할 시간입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써 구원을 받았습시다([에베소서. 2:8-9](#)).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 오신 일들에 대한 이해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것은 인간의 가족을, 창조가 있기 전부터 존재하던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성된 천상의 가족들과 함께 합치는 것이었습시다([욥기 38:7-8](#)).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 몰락할 때에도 그 계획을 버리지 않으셨습시다. 믿는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한 사람처럼, 예수님 자신처럼 천상의 존재로 만들어 질 것이다([요한일서 3:1-3](#)).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표지로 그 생각을 나타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찬양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표현하였습시다([베드로후서. 1:4](#)).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3:1](#), 강조됨). 이번 장에서는 성경이 어떻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시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들을 작은 신들에게 양도 하셨을 때, 그는 그 자신의 새로운 인간 가족과 함께 다시 시작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시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직후에([창세기. 11:1-9](#)) 아브라함을 부르셨습시다([창세기. 12:1-8](#)).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원래의 에덴 동산의 계획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습시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좋은 통치를 복원하는데 실패하였습시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자녀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인 예수님, 다윗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담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벨탑에서의 형벌을 받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처벌이 완수되었다고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진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것에 관해서 썼습시다. 여기에 그 중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에베소서. 3:3-6LEB](#))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라디아서. 3:26-29](#)^{LEB})

제가 앞장에서 설명한 대로: 구약 성서의 도처에 기록된 것처럼,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작은 신들에게 통치하라고 주었던 나라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이스라엘 이외의 나라들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상속권을 박탈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간의 “몫”이었습니다([신명기. 32:9](#)).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상속을 박탈 당한 사람들에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지정학적인 분류표와 민족적인 분류표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이집트인, 모아브인, 아말렉인). 그러나 신약 성서 시대의 포괄적인 표현은 비유대인입니다. 이것은 라틴어의 국가를 지칭하는 단어인 “nations” (*gens*) 에서 온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유대인이 아니라면, 당신은 이방인입니다.

신약 성서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인—예수님—께서 돌아 가셨다가, 아브라함의 민족적 후손(이스라엘 백성/유대인)뿐만 아니라, 진정한 신인 하나님으로부터 예전에 상속권을 박탈 당한 나라들의 사람들도 모두 포함 해서 구원 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이방인을 포함하는 것을 미스터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버리신 나라들로부터 온 사람들, 그리고 다른 신들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상속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를 크게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을 받아 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진정한 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자녀입니다([요한복음1:12](#); [갈라디아서. 3:26](#); [로마서. 8:14](#)). 이것이 왜 신약 성서에서 믿는 자들을 일컬을 때 가족의 용어를(아들들, 자녀, 상속자) 사용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에 의해서 “입양”되었다는 용어를 쓰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로마서. 8:15, 23](#); [에베소서. 1:5](#); [갈라디아서. 4:4](#)). 상속이란 용어는 수정처럼 명확하고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천상의인간 가족. 믿는 자들의 운명은 아담과 이브가 최초로 그러했듯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것조차도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가족 재회

히브리서의 처음 두 장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합 가족—천사와 인간—에 대한 극적인 그림을 보여 줍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것은 모든 성경 속에서 가장 마음을 뒤흔드는 성경구절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다른 천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4절 LEB). 라는 요점을 나타냅니다. 천상의 의회의 그 누구라도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상, 저자는 그 어떤 천사라도 사람이 된 다음 왕국을 유산으로 물려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5-6절LEB).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중의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간들은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에 비하면 더 작은 존재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브리서. 2:6-9](#)).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아마 구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들이 알았으면 하고 원하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의 영원히 살 수 없는 추종자들은 천사가 될 것입니다—그리고 같은 가족의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마지막 형태의 지구상의 왕국으로의 귀환이 있으시든지 간에, 새로운 에덴동산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나머지 천상의 의회의 구성원들에게 소개를 하실 것이며, 그 의회를 우리들에게 소개 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히브리서. 2:10-13](#)LEB)

하나님의 의회 앞에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그들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앞에 예수님은 당황해 하시는 대신에 그것을 기꺼이 받아 들이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세계 제패 전략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회에 서서서 (“의회 안에서”) 우리를 나타내셨습니다: 보라—

나를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보아라. 우리는 모두 똑 같다. 지금부터 – 영원까지. 그리고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가 입장하는 것, 즉 영광스러운 가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18-23](#) 절에서 아름답게 표현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그리고 피조물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울은 같은 메시지로 믿는 자들을 격려 하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믿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29LEB](#)). 그는 고린도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고 우리의 인간이 변화할 것이라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53](#)).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천상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베드로후서. 1:4](#)). 요한은 더 간단하게: “우리는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요한일서 3:2](#)).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 번 들어 왔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그 말을 오로지 좋은 것, 또는 아마도 “나쁘지는 않은 것”등으로 가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생각을—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처럼 된다는 사실—의무 이행으로 바꿔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지 않았는지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에, 우리들 마음 속에 “좀 더 잘해”라고 맹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축복이 이어지게 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 대한 낡은 생각의 전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예수화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쁜 이론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의무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었을 때 기뻐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하나님이 우리가 될 것을 미리 운명 지으신 ([로마서. 8:29](#))—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에 노예화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면서 말입니다. 하나는 내면을 보는 관점; 다른 것은 천국을 향한 관점.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인생이란, 우리가 아직 어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은 두 가지 개념을 확실히 붙잡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양자가 되는 일—그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들의 목표는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의회가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며,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로 운명이 정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의 동료이며, 아직도 죽음의 신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사로 잡혀 있는 이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 그를 도와 주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성경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현재의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현재의 당신의 인생은 양자의 선택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그것을 즐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같이 공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 16장

천사들 위의 통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우리 아버지의 왕국에 벌써 참여하고 있는, 다시 빛어진 천상의 의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의회입니다—그러나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왕국 안에 있는 동안에도([골로새서. 1:13](#)), 우리는 아직 그 왕국의 비밀을 완전히 보지는 못하였습니다—우리는 세상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을 아직 보지 못 한 것입니다. “별써, 그러나 아직은” 이란 역설은 성경 전체에서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저는 여러분이 “아직은”이라는 말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을 잠깐 살펴 보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왕국에 참여하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우리의 참여는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낱 우리를 위해 프로그램 된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체, 곧 그의 대표라고 하는 전체의 관념을 침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자유롭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다면—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종하고 경배하는 자유가 있으며, 또한 반란과 우리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도 자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의 과중(씨 뿌리기)은 프로그램화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반드시 실현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의 성공은, 인간의 자유에 적응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강요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또한 선택의 자유가 있는 천상의 존재들도 할 수 없습니다.

제 1장에서 보여 드린 천상의 의회의 회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으시는 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의 하나님의 천상의 의회의 회의로 여러분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악한 아합이 죽을 시간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회의 천사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실행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허락하십니다([열왕기상 22:19-23](#)). 운명(예정설)과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협력하여서 일을 합니다. 그의 목적은 절대 뒤집어 지거나 중단 되지 않습니다. 그는 죄와 반역을 받아들이 수 있으며 아직도—다른 자유 대리인을 통하여— 그가 원하시는 것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C. S. 루이스가 [페레란트라 \(Perelandra\)](#) 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좋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에게 복종하였을 때를 대비해서 그분께서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바라기에, 하나님의 가족의 의회가 되는 건가요? 그것은 어둠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일에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르고 자비로운 삶을 사는지 보여 주고—예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말입니다. **To enjoy life as God intended it.** 질투심이 많은 천상의 지적인 존재의 통치하에 있는 적대적인 영토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방어하고 진정한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모든 소명(부르심)은 다가올 왕국에 대한 훈련입니다. 바울이 세상사 때문에 논쟁하면서 신성한 관점을 잃어 버린 고린도 사람들에게 질문했듯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고린도전서. 6:3](#)). 그는 심각했습니다. 바울은 그 진술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나타 내었습니다.

나라를 지배하다

최종 형태의 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오면, 암흑의 세력은 패배할 것입니다. 악마의 신들은 그 나라들에 대한 통치권을 영원히 잃어 버릴 것입니다—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간의 가족과 의회에 의해서 대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보십시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요한계시록. 2:25-28](#))

예수님께서 새로운 지구에서 그의 왕좌를 오르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새로운, 세계적인 에덴 동산—그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공국과 권세들은 그들의 왕좌를 벗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들의 공국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천사들에게조차도 할당되지 않을 것입니다—최종적인 에덴의 왕국에서는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높은 신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간 형제 자매들에게 책임자의 지위를 부여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요한계시록 2:28](#)절 말씀 때문에 어리둥절하셨나요 “내가 그에게 새벽 별을 줄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악마의 세력들을 처리한 다음 그 국가들에 대한 예수님과 우리들의 공동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벽 별”은 신성한 존재를 묘사하기 위해 쓰여 졌습니다([욥기 38:7](#)). 그것은 또한 메시아의 용어입니다. 메시아는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별의 언어”는 때때로 그의 다가 올 통치를 묘사합니다. [민수기 24:17](#) 절의 말씀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왕권)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LEB). 라고 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묘사 하셨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요한계시록. 22:16](#)LEB).

[요한계시록 2:25-28](#) 절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메시아적인 새벽 별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들에게 새벽 별을 주셨습니다—예수님은 그의 메시아적 통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20-21](#) 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믿는 자들이 그 요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했습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20-21](#)^{LEB})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에, 우리들은 신성의 참여자가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의회에서 우리들을 형제 자매라고 소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것과 같이 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주시기를 위한 것입니다. 천국은 이 새로운 지구상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영원한 에덴

창세기의 첫 장에서부터, 사람에 대한, 그 나머지의 하나님의 형상체에 대한, 그리고 그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에덴은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우리들을 다시 에덴으로 데려가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고 우연의 일치도 아닙니다:

또 그 천사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도시의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또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 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더 이상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은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1-5](#))

여러분은 생명나무가 그 나라들을 치료한다는 대목을 알아 차리셨나요? 한때는 공국과 권세들에 의해 지배되었던 그 나라들이 새로운 아들과 딸들에 의해서 지배됩니다—여러분과 저에 의해서.

요한 계시록에 생명 나무가 보여진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7, 11](#)절에서 끝까지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 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 [그들은]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생명 나무에 대한 언급은 명백하게 에덴 동산적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아담의 죄로 인한 에덴 동산의 추방으로 비롯된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심판 전에 부활할 것이며, 두 번째 죽음이 마지막 심판입니다([요한계시록. 21:8](#)).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에 의한 고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후세계에 관해서 부적당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후 세계가 어떤 건지에 관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구름 위를 떠 다니면서 하프를 연주하고 끝없이 노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의 소파에 앉아서 사랑했던 사람들과 다시 만나거나, 옛날부터 잘 알려진 기독교인을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에덴이 제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충성을 다하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즐기며 또 보살피면서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천국과 지구는 더 이상 별개의 장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누구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9](#)GNT). 이 장관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안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거시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유지하게 해 줍니다. 바울이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구절을 쓴 다음에, 그는 고린도 신도들에게 쓴 두 번째 편지에서 말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모든 고통에 대한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 하노니, 왜냐하면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3-9](#), 강조됨)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나라에 올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왕좌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요한계시록. 3:21](#)).

우리는 마음 속에 우리의 운명을 간직하고 살아 가거나, 또는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날, 당신이 비난하거나, 하찮게 여기던 사람, 또는 업신여기던 사람과 함께 아파트나 사무실을 같이 써야 한다고 하면, 당신은 중재자나, 격려자, 또는 아마도 그 사람에 대한 친구가 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동료 신자들을 그렇게 업신여기며 대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남자 혹은 그녀를 적으로 여기고 싸우는 데 힘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는 그 만한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은 왜 일까요? 우리는 마음 속에 영생을 믿고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공유하실 얼마나 많은 통치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 질문은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선물은 그 어떤 것도 다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서열을 놓고 믿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서로간에 유리한 이점,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 등의

사소한 일로 다투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울이 그들의 운명을 상기 시켜 주어야만 했던 고린도 신도들보다 나은 점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지배를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여, 이제는 마치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한 계획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결론

이제 우리의 여행을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가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숙고해 보았습니다: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건가요? 만약 그들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만들어 낼까요? 우리가 성경 속에 묘사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진짜라면 그 사실은 우리들의 믿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친숙하고 받아 들여진 부분이 아니라, 흔치 않고 자주 덮어 놓으려고 했던 부분이라면? 제가 성경의 초자연적인 줄거리를 알아차렸을 때, 모든 종류의 일들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들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과 목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도전을 제기해 보셨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습니다

이 책에서 토론을 해 온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약 성서의 신들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는 것의 의미를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명령은 돈이나 보트, 또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심이 있는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명령은 사실상 그것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신에게 무모한 충성을 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신들과 그들의 백성들("국가들")의 결과물과 함께 산다는 것은 끔찍하다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들은, 그 어느 날 상속권을 박탈 당하였고, 부패한 다른 신들의 착취를 받으며 그들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였고, 그의 약속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웃 사이더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12](#)) 우리는 길을 잃었고, 하나님의 적군인 보이지 않는 권력자들에게 충성을 다 하는 어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18](#); [골로새서. 1:21](#)).

그 상황에 대한 이해는 입양 그리고 상속과 같은 교리적인 개념을 더욱 의미 있게 해 줍니다. 그것은 전후 문맥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손으로부터 창조된 세상을 즐기면서, 그의 가족들과 지구상에서 사는 계획을 무효로 하는 것을 꺼리십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가족을 세우셨습니다—그리고 상속권을 박탈 당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도관으로 삼으셨습니다([사도행전 10:26-27](#)).

성경의 정신적인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현실을 수용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구약 성서가 앞으로 전진함에 따라, 그것은 왜 우상 숭배의 죄가 다른 그 어떤

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창조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 추방을 당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버림 받았습니다. 이것이 왜 성경이 구원을 설명할 때, 항상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핵심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더 나은 행동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충성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신들 중의 신이신 하나님으로 가슴을 채우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어야 할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날의 우리들에게는, 충성에 대한 확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윤리와 행동은(우리의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시기에 충분한 충성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벌써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들을 행복과 만족으로 이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우리들을 조종하여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왕국인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나머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의 가족— 우리의 가족—들의 조화로운 삶을 잠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우리들의 목적—우리는 모두가 에덴 동산을 복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에 대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회원 자격은 오직 한 가지의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오신 우리 주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 회원 자격은 놀라운 특혜를 부여할 뿐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뚜렷한 목적을 제공합니다.

하나님 가족의 멤버들은 한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지구상에 복원하고 그의 가족들의 회원을 늘려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돌아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는 대 반전을 추진할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의 실패 이후에 악이 전염병처럼 인간들 가운데 퍼지자, 복음이 해독제처럼 바로 그 감염된 인간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우리들은 창조 이래로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지구상의 집에 있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변하지 않는 열망과, 모든 나라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가지신 신 가운데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나르는 전령들입니다. 에덴 동산은 다시 살아 날 것입니다.

매년 세계의 대륙들이 서로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대륙 이동설”의 진행은 인간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야 관측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것은 꾸준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육안으로는 암흑의 세력이자 어둠의 신들인 그들의 영역이 매일같이 얼마나 줄어 드는 지, 또는 복음이 어떻게 어둠의 신의 통치를 받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유를 찾게 해 주는 지를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 속에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의 핵심은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에 대해 아직도 추진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적인 섭리가 우리 인간의 역사의 사건들과 우리들의 삶에 활동 중인 것을 믿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믿으라고 진정으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그의 보이지 않는 손과 그리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하나님과 우리들에게 충성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환경에 관여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4](#)) 그렇게 하여 함께, 하나님의 지구 전체의 에덴 동산의 목표를 중단 없는 전진으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그 누군가에게 왕국으로 가는 길을 찾게 해 주거나 왕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매일 매일의 날들은 우리에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힘든 임무 속에서, 서로서로를 격려할 기회를 가지면서 어둠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비록 우리가 왜 또는 어떻게 하는 지 전혀 모른다고 할 지라도, 우리는 모든 일을 할 것이며 처리해야 할 사안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은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그것은 목적의식이 있는 생활입니다.

용서의 기도

용서의 기도: 값진 선물

용서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찾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용서는 쉽게 가질 수도 쉽게 줄 수도 없는 값진 선물입니다. 용서는 인생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용서의 목적입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능합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쳤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잘못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점이 어떻게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를 해칠 수 있다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관심이라도 가지실까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자신이 실제로, 인간이 서로 서로에게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창세기 6:5-6).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단지 악마의 생각에 불과한 것 때문에 슬퍼하셨다는 사실. 이렇게 하여, 궁극적인 용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성 때문에, 용서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하시기 위해 모든 잘못은 해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땅인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받으심으로 우리들의 죄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28).

그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은 죄책감과 비난에서부터 자유로워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궁극적인 사랑의 행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위해 고통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어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들의 결과에 대해서도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의 값없이 주시는 용서의 선물을 받아 들이는 일입니다.

용서의 기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고뇌에 빠진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용서의 기도를 찾다가 이 웹 페이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당신은 자신을 심하게 상처 받게 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 들인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는 값없이 주어 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런 심문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만약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요한일서 1:10). 비록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유 선택이지만, 결국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화해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만약 당신이 진정한 용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숙고하시고 진정으로 그를 구세주로 받아 들이십시오. 당신은 용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 새 생명을 받아 들이다

용서의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 씻어 내졌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공회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 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12).

만약 당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면, 그때 당신은 용서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인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기도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의 당신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당신의 율법을 어기고 저의 죄로 말미암아 당신으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과거의 죄로 가득한 삶으로부터 돌아 서서 주님을 향해 가겠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 하셔서, 살아 계시며,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제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님으로 초청합니다. 성령이여 부디 임하사 주님을 순종하며 제 남은 인생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 모두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2:38)

만약 당신께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은 우리의 책무를 다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의 책무를 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십시오.
- 누군가에게 당신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믿음에 대해 말씀을 전하십시오.
- 매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긴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그의 말씀을 읽는 매일의 습관을 길러 나가시면 됩니다. 당신의 믿음과 성경의 이해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당신을 지원할 수 있게 믿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발전 시키십시오.
- 당신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성도의 모임을 찾으십시오.

당신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셨나요? 예 또는 아니오를 클릭해 주세요.

당신은 벌써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판을 대신하기 위해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무런 흠결도 없는 삶을 사셨고,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성경 말씀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믿고 그리고 이것을 당신 가슴속에서부터 신뢰한다면, 예수님을 당신의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선언한다면, 당신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 저는 벌써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질문이 있습니다.

작가로부터의 요청

초자연적인 현상은 저의 세부적인 학술 저서인 보이지 않는 왕국의 축약형입니다: 성경의 초자연적인 세계관의 복원(렉스햄 출판사Lexham Press, 2015). 보이지 않는 왕국은 아마존닷컴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당신의 정신을 고양시켜 준다는 것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너그러운 기부 덕분에 저는 이 책을 나누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의 책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miqlat.org 또는 nakedbible.org으로 기부를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더 많은 성경 강의를 원하신다면, 제 홈페이지(drmsh.com)를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저의 네이키드 바이블 팟캐스트 (nakedbiblepodcast.com)를 청취해 주십시오. “네이키드 바이블(노출된 성경)”이란 이름이 반영하듯이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현대의 전통이나, 교파, 그리고 다른 종교적인 필터에 의해 여과되지 않은 성경 본문입니다.

제 홈페이지에서도 발견 하시겠지만, 저는 또한 사람들에게 성서 신학을 소개하려는 수단으로 공상 과학 소설을 씁니다. 저의 소설들(최근에, 파사드와 그의 속편, 전조)은 아마존닷컴에서 영어판만 가능합니다.